Weekly 공감

2013.05.06 NO.207
korea.kr/gonggam

숭례문, 문화융성의 길을 열다

기획특집

국민에게 행복 주는 '문화융성시대'

조용필·들국화 '거장들의 귀환'

문화융성 위해 정부가 할 일

박양우
중앙대 예술대학원 교수

왜 문화가 중요하냐고 묻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이 되었다. 굳이 저명한 미래학자들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이제 문화는 이 시대의 당당한 주연이 되었다. 문화가 그만큼 주목받게 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28일 업무보고를 통해 문화융성을 '문화의 융성'과 '문화를 통한 융성'으로 정리했다. 우선, 문화의 융성은 인문·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문화 분야의 역량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예술가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며,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과 사회 내의 문화 다양성이 확대되는 것이라 했다.

문화를 통한 융성은 문화가 가진 다양한 가치와 힘이 다른 사회 분야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즉, 문화적 자원과 그 속성인 창조성과 다양성이 정치·경제·사회·기술·공동체·역사·국제교류 등 21세기 창조국가 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가 융성하고 문화가 있는 삶을 위해서 행복을 키우는 문화, 경제를 키우는 문화, 갈등을 없애는 문화, 국격을 높이는 문화로 나누어 정리한 것은 충분히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문화융성은 단시간에 일사분란하게 이룰 수 있는 간단한 화제(話題)가 아니다. 단순히 좁은 의미의 문화가 융성하고 문화가 가진 창조성과 다양성의 가치가 다른 분야에 접목되는 것만일 수 없다. 지난 4월 25일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정홍익 가톨릭대 교수가 제기한 대로 문화융성이란 규범문화(規範文化)·인지문화(認知文化)·정서문화(情緖文化)가 고루 발달한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문화가 융성한 나라란 올바른 시민정신이 발달하고, 사회적 자본과 소프트파워가 강하며, 물질적 욕구를 넘어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고 예술과 오락을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나라, 문화산업이 발달해 문화 경쟁력이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나라를 이루는 작업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문화는 기본적으로 비정치적인 속성이 강하지만 문화가 융성한 사회를 위한 환경조성에 인력과 재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할 정부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마침 새 정부가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삼은 지금이야말로 높은 문화의 힘을 배가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최근 정부가 문화융성을 주창하며 분위기를 선점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화는 비정치적인 속성이 강해서 정부가 노력한다고 해서 곧바로 결실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 나라와 공동체의 문화는 국민 개개인의 가치와 행태가 모여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마침 새 정부가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삼은 지금이야말로 백범 김구 선생이 한없이 가지고 싶어 하던 높은 문화의 힘을 배가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사회 곳곳에 문화의 향기가 배어나는 사회, 그것으로 국민이 행복해하는 사회, 이웃을 배려하며 하나로 화목하며 사는 사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수준 높은 삶의 가치와 예술을 가진 사회, 문화산업이 발달한 그런 사회, 이름 하여 문화가 융성한 나라로 나아가면 좋겠다. G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표지 이야기 | 국민의 문, 숭례문이 다시 열렸다. 국민이 행복한 문화융성의 새 시대가 개막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대표들이 5월 4일 다시 태어난 숭례문 현판의 제막천을 걷고 있다.
표지사진 · 문화재청

기획특집
국민이 행복한 '문화융성 대한민국'

숭례문, 문화융성의 길을 열다

정부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위클리 공감
발행일 2013.05.06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진룡
제작협력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인쇄제본** 삼화인쇄
제작문의 02-3704-9887
구독관련문의 ☎ 02-2625-3294 이메일 jjsmall@korea.kr

독자마당

〈위클리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5월 13일(월)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위클리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위클리 공감〉 이 기사!

치유의 숲 꼭 한번 가고 싶어

206호 〈위클리 공감〉을 통해 국내에서 운영 중인 '치유의 숲'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치유의 숲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장 먼저 관심이 가더군요. 산림청이 운영하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사진에서 느껴지는 숲의 청량감이 기사를 읽는 내내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벌써부터 청태산 치유의 숲에서 맨발로 땅을 밟고 찜질을 해보고 싶어집니다. 국가가 국민의 힐링을 위해 애쓰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느끼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면서 '힐링'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승철(사업가·서울 강남구 논현동)

국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저스포츠 궁금

206호에서 '2013 인천 실내&무도아시안게임' 기사를 읽었습니다. 풋살이나 카바디 같은 생소한 스포츠 외에도 체스와 바둑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신기하네요. 〈위클리 공감〉에서 이런 레저스포츠를 소개해주면 좋겠어요. 각 스포츠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배우기 적합한 연령층, 일반인이 배울 수 있을 만한 곳을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레저스포츠 활성화로 국민들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리라 생각합니다.

김재현(회사원·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지난 호를 읽고

나만의 힐링법 〈위클리 공감〉 읽기

206호 기획특집으로 힐링을 다뤄주셔서 많은 생각을 하며 읽었습니다. 힐링 열풍이 일게 된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성숙해지고 뒤를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생겨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힐링법은 알찬 기사가 많은 〈위클리 공감〉을 매주 읽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운이 나는 좋은 기사를 많이 실어주세요.

박길자(자영업·서울 강남구 신사동)

'창조경제는 시대정신'이란 말에 공감

205호 '창조경제 현장을 가다' 기사를 읽으며 창조경제의 개념에 대한 의문이 많이 풀렸습니다. 창조경제 생태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창의적 자산을 기반으로 새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간단명료하게 정리돼 있더군요. 앞으로 남은 과제는 '실천'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창조경제를 실현해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홍희(취업준비생·서울 마포구 창전동)

주말 벼룩시장 소식 반가워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작아서 못 입는 옷, 어릴 때 갖고 놀던 장난감 등이 많습니다. 얼마 전 아이들과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모아 가까운 재활용 나눔시장에 가서 저렴하게 팔았습니다. 필요한 물건들로 바꾸기도 했는데 새롭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버릴 것이 아니라 필요한 물건으로 바꾸고 나누고 한다면 환경도 살리고 아이들에게 물건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재활용 벼룩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참여하는 즐거운 나들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홍대욱(직장인·경남 양산시 소주동)

복구된 숭례문에 거는 기대

지난 2008년 숭례문이 화염에 휩싸였던 때를 기억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화재에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잃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205호 '도편수 맡은 신응수 대목장' 기사를 읽으니 이제 우리 숭례문이 다시 돌아왔다는 실감이 듭니다. 복구 공사에 참여한 신응수 대목장이 장인정신을 내걸고 최선을 다한 만큼 예전 못지않은 아름다움을 뽐내리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문화재 보존에 더욱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문화재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숭례문의 복귀를 환영합니다.

김나리(고시생·서울 강북구 수유동)

알림

KOICA 글짓기·사진·광고·건축디자인 공모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글짓기·사진·광고 및 건축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응모자격 국민 누구나
- ▶ 글짓기 공모전 : 초등학교 6학년 및 중·고등학교 전 학년
- ▶ 사진 공모전 : 국내 및 재외거주 대한민국 국적자
- ▶ 광고 공모전 : 국내 및 재외거주 대한민국 대학(원)생(개인 및 팀, 2인 이하)
- ▶ 건축디자인 공모전 :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전공 불문)

응모주제
- ▶ 글짓기 공모전
  - 우리는 왜 개발도상국을 도와주어야 하는가?
  - 개발도상국에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 외
- ▶ 사진 공모전
  - 개발도상국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인
  - 개발도상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한국의 무상 원조 사업
  - 빈곤 퇴치 기여 및 새천년 개발 목표 달성 관련 외
- ▶ 광고 공모전
  - 창립 22주년을 맞이하는 KOICA
  - 전 세계 빈곤 퇴치를 위해 노력하는 KOICA 외
- ▶ 건축디자인 공모전
  - 한국 정부의 지원사업으로써 KOICA의 인도주의적 가치 및 한국적 미를 재해석하여 건축을 통한 새로운 공적개발원조 문화 창출
  - 협력국의 문화 및 지역성을 반영하고 현지인들의 삶과 융화되는 지속 가능한 건축

응모기간 6월 21일까지

문의 공모전 운영사무국 ☎ 02-334-9044, koicacontest.co.kr

KOTRA 해외 글로벌기업 디자인 공모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KSCM(Korea Service and Content Market) 행사를 통해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의 출제기업은 영국의 레킷벤키저 사입니다. 해외 진출을 꿈꾸는 국내 예비 디자이너 및 신진 디자이너 여러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응모자격 고등학생, 2년제 이상 대학 및 대학원 디자인 전공자, 유학생

응모주제 영국 레킷벤키저 사의 제품 디자인(용기 및 포장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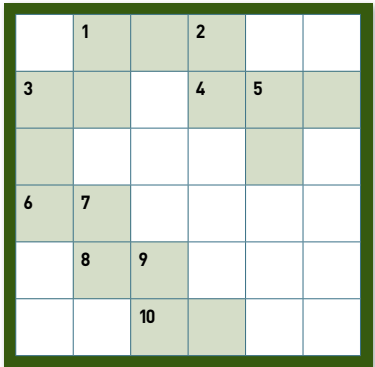
시상내역 중소기업청장상 1명(상금 300만원), KOTRA 사장상 1명(상금 200만원), 기업상 1명(상금 100만원), 입상 5명(상금 20만원)

응모일정 5월 24일까지

접수방법 전자메일(kscm@kotra.or.kr) 접수

문의 KOTRA 지식서비스사업단 ☎ 02-3460-7346, wwon610@kotra.or.kr

낱말맞히기

	1		2		
3			4	5	
6	7				
	8	9			
		10			

빈칸의 답을 '공감 낱말 맞히기 207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5월 13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 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풀이

1. 1398년(태조 7년)에 완성된 우리나라 국보1호 건축물. 2008년 2월 10일 화재로 소실되었지만 2013년 5월 4일 다시 우리 곁으로!
3. 어떤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내어 꾸미는 짓.
4. 크림, 분, 향수. 서울 명동 외국 관광객 인기 상품.
6. 좋은 부위를 떼어내고 남은 쇠고기를 가리키는 순우리말. 주로 국거리로 쓰임.
8. 한껏 차서 가득함.
10. 국제영화제 개최, 한국 전통문화의 전당 개관, 비빔밥에서 유추할 수 있는 도시.

세로 풀이

1. 밥 지은 솥에서 밥을 푼 뒤에 물을 붓고 데운 물.
2. "행복을 키우는 ○○, 경제를 키우는 ○○, 갈등을 없애는 ○○, 국격을 높이는 ○○로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3. 매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주소를 적어 매의 꽁지에 매어둔 네모진 뿔. "○○○를 떼다."
5. 장이 서는 곳.
7. 서로 다른 사물이나 의견, 관점을 알맞게 조절해 서로 잘 어울리게 함.
9. 조금도 허술함이 없이 아주 완전함. "○○의 대책을 세우다."

〈위클리 공감〉 205호(4월 22일) '공감 낱말 맞히기' 정답

가로 **1** 영호남 **3** 인사 **4** 대화 **5** 미문 **7** 일순간 **9** 투자
세로 **1** 영사 **2** 남대문 **3** 인플루엔자 **5** 미사일 **6** 대간 **8** 순천

〈위클리 공감〉 205호 '공감 낱말 맞히기' 당첨자

김철호·경기 부천시 원미구　김수아·광주시 북구 중흥동
황정현·대전 서구 문정로　조수복·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박순미·부산 기장군 일광면

※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적어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우편엽서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우 : 110-360)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 〈위클리 공감〉 담당자 앞

숭례문 복구 기념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희망엽서를 담은 '희망보감'의 보자기 매듭을 묶고 있다.

"숭례문 부활은 새 시대의 문 열린 것"

박근혜 대통령, 기념식 축사… 축하공연엔 수만 명 국민 함께 즐겨

대한민국에 문화융성의 새 시대가 열렸다. 복구된 국보 1호 숭례문이 새 시대를 알리는 아름다운 상징이 됐다.

방화로 훼손돼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던 대한민국의 정문이 5년 3개월 만에 국민의 품에 다시 돌아왔다. 문화재청은 5월 4일 오후 2시 서울 숭례문 현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복구사업 참여 장인들과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복구 기념식을 열었다. 2008년 2월 10일 화재 이래 진행한 복구사업이 공식 완료됐음을 선언하는 자리다. 숭례문 복구는 소실된 문화재의 외양을 되살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정신의 부활을 의미한다. 그만큼 국민에게 국보 1호 숭례문이 가진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숭례문은 우리의 민족혼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대한민국의 얼굴"이라면서 "숭례문의 부활은 단순한 문화재 복구 차원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 민족의 긍지를 되살리고, 새로운 희망의 문, 새 시대의 문이 열린 것"이라고 의미를 되새겼다.

기념식은 '숭례문, 문화의 새 문이 열리다'라는 슬로건과 '상생'이라는 주제 아래 숭례문 현장과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오후 6시까지 이어졌다. 경축행사 총감독을 맡은 이윤택(61) 연극 연출가는 "대한민국의 큰 문인 숭례문 복구를 계기로 남과 북, 여와 야, 보수와 진보, 동과 서, 중앙과 지역 등 서로 대립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의미"라며 기념식의 의의를 밝혔다. 기념식 후 이어진 축하공연에는 숭례문을 보러 나온 수만 명의 국민이 함께했다. 문화재청은 이날부터 숭례문을 일반에 공개했다.

글 · 박상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 숭례문 복구 기념식 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5년 3개월이라는 오랜 기다림 끝에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다시 복구되어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이 순간을 함께 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감격의 순간을 함께 맞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보 1호 숭례문은 우리의 민족혼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처마, 누각, 서까래, 단청, 현판, 성벽마다 선조들의 얼과 혼이 서려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 숭례문이 5년 전 불길 속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의 마음도 참담하게 무너졌습니다.

수도 서울의 관문으로 나라와 백성을 지키던 숭례문은 이제 우리 곁에 다시 우뚝 섰습니다. 오늘 숭례문의 부활은 단순한 문화재의 복구 차원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 민족의 긍지를 되살리고, 새로운 희망의 문, 새 시대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숭례문은 웅장하고 당당한 위용으로 전통적인 기법과 우리 고유의 재료를 사용해서 조선시대의 원형을 되찾았고, 일제강점기에 훼손되었던 좌우 성벽까지 다시 쌓아 올려서 숭례문 본래의 웅장한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숭례문은 우리 국민 모두의 작품입니다. 기와 한 장, 단청 하나에도 혼신의 노력을 담아 땀 흘려주신 수많은 장인 여러분의 노고와 대를 이어 길러온 소나무를 아낌없이 기증해주시고 7억원이 넘는 성금을 모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숭례문 복구가 우리 문화의 저력과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 정부는 국정기조의 핵심축으로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한류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새로운 지구촌 문화의 흐름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지금, 대한민국이 진정한 문화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의 뿌리인 전통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천년 역사에 면면히 흘러내려온 우리 민족의 정신과 가치를 되찾고 그 소중한 유산을 세계와 나누어야 합니다.

지금은 문화적 상상력과 창의력의 크기가 국가발전과 비례하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의 문화유산과 정신이 박물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문화의 가치와 정신이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야 하고, 더 나아가 세계 인류와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선조들이 남기신 찬란한 문화의 토양 위에 우리 국민의 창의적 역량과 문화적 소양을 높이 쌓아 올려서 문화융성과 국민행복의 새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오늘 숭례문의 새 문이 활짝 열렸듯이 우리의 문화 자산과 콘텐츠를 인류가 함께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세계로 나아가는 문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례문 명예수문장인 서진원 신한은행장이 기념식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큰북을 치고 있다.

국민 대표들이 숭례문의 중앙 관문인 홍예문을 처음으로 열고 있다.

숭례문 복구를 축하하기 위해 세종로와 광화문광장에는 국·공립·민간 공연단체 소속 1,000여 명이 다채로운 공연을 펼쳤다.

"이제 영원히 우리 곁에 남으라"

제막천 벗기고 새 현판 드러나자 국민들 "아! 숭례문" 탄성

2013년 5월 4일, 명예수문장(서진원 신한은행장)이 북채를 고쳐 쥐었다. 낮고 깊게 울리는 대고삼타(큰북을 세 차례 치는 의식)로 숭례문이 다시 완성됐음을 맑은 하늘에 알렸다. 윗지붕에 붙은 새 현판은 '숭례문, 문화의 새 문이 열리다'라고 적힌 제막천에 가려져 있었다. 제막천 아래 청색·백색·적색·흑색·황색 등 천지만물의 조화를 상징하는 오방색 천 9줄이 길게 늘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영화 〈마이 리틀 히어로〉의 주연 지대한(13)군과 함께 노란색 줄을 잡아당겼다. '예를 숭상하라.' 숭례문 세 글자가 세로로 내려써진 현판이 드러났다. 지켜보던 국민들의 길고 낮은 탄성이 행사장 주변으로 번졌다. 남쪽 관악산의 화기를 다스리기 위해 세로쓰기로 현판을 만들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원형 그대로의 백색 현판 글씨가 밝게 빛났다. 서울의 가장 오래된 건축물인 숭례문이 다시 태어났다.

새롭게 탄생한 숭례문은 우리 국민 모두의 작품이다. 기와 한 장, 단청 한 줄에도 한국 최고 수준의 장인들의 노고가 서려 있다. 복구를 기원하는 국민은 7억원이 넘는 성금을 냈다. 복구 사업은 국민의 염원을 한데 모아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국가적 작품이다. 일제강점기에 잃었던 문 양옆의 성곽도 이번에 다시 이어 붙여 위용을 더했다.

숭례문 복구는 문화재 복원의 수준을 넘어 문화융성 시대의 개막을 의미한다. 박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새 정부는 국정 기조의 핵심축으로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고자 한다"면서 "숭례문의 새 문이 활짝 열렸듯이 우리의 문화자산과 콘텐츠를 인류가 함께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세계로 나아가는 문을 활짝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숭례문 복구는 국민 모두의 힘으로 이뤄졌다. 이를 상징하듯 국민들의 희망엽서가 담긴 '희망보감(希望寶鑑)'이 숭례문 앞마당으로 들어왔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희망이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는 의미에서 희망보감의 매듭을 단단히 묶었다.

국민 화합의 장으로 거듭난 숭례문

기념식을 찾은 국민들은 숭례문이 영원하기를 기원했다. 가족 나들이를 겸해 부인과 함께 숭례문을 찾은 윤순근(62)씨는 "앞으로 관리가 중요하다. 국민들이 국보를 지키려는 마음은 더 중요하다. 국민 모두가 숭례문을 내 물건처럼 아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강혜민(20)씨와 이현경(20)씨는 "날씨가 좋을 때 기념식을 하게 돼 기쁘다. 그동안 복구에 많은 분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다. 예쁘고 좋게 고쳐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낮은 북소리가 울리면서 수문군이 배치됐다. 숭례문의 중앙 통로는 홍예문이다. 남과 북을 잇는 육중한 붉은 철문이 서서히 열렸다. 남쪽 바람이 홍예문을 거쳐 북쪽 사대문 안으로 흘렀다.

숭례문이 다시 열린 이날 수만에 달하는 국민들이 주변 일대로 모여들었다. 남대문시장에서 35년 동안 청과물 가게를 열어 온 상인 김사옥(72)씨는 "숭례문이 복구돼 기분이 좋다"면서 "새 숭례문을 보기 위해 찾아온 관광객으로 장사도 잘 될 것 같다"며 반겼다.

모자 가게를 하는 김성수(48)씨는 "구경 오는 사람들이 늘어 남대문시장도 활성화될 것 같다. 앞으로 잘 보호해 많은 사람이 찾고 시장도 덩달아 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 문이 다시 열린 5월 4일, 숭례문에서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세종로는 축하의 잔치가 벌어졌다. 세종로를 따라 자유연희마당이 펼쳐지고 광화문광장에서는 '판굿, 비나리, 아리랑'을 주제로 한 공연이 이어졌다. 화재에 따른 국민의 상실감을 치유하는 자리, 이날 숭례문은 온 국민과 함께 경축하는 국민 화합의 장으로 거듭났다. Ⓖ

글·박상주·박기태 기자

홍예 천장 용 그림
조선 초기 양식 재현

단청 안료 인공안료 → 전통안료
단청 문양 근대기 변형 → 조선 전기

숫자로 본 숭례문 복구

복구 기간
1,916일(5년 3개월)

숭례문 화재 : 2008년 2월 10일 저녁 8시 50분~2월 11일 새벽 2시 5분
화재 수습 : 2008년 2월 11일~5월 11일
복구 준비 : 2008년 6월~2009년 12월
복구 공사 : 2010년 1월~2013년 4월

투입 인원
3만5,000여 명
목공사 3,968명, 석공사 9,938명, 기와공사 284명, 단청공사 1,541명, 철물제작 251명, 관리·감리 등 1만 4,257명, 기타 5천명

복구 소요 예산
277억원
국비 245억원, 기타 31억7천만원(기탁금 7억5천만원, 지원금 15억원, 지자체 분담금 서울시 9억2천만원)

목재량
15만1,369재
국내산 육송

안료량
1,332kg
총 12종

기와량
2만3,369매

석재량
1,228㎥
(재사용 134㎥ 포함 15톤 트럭 238대분)

스프링클러
152개
상·하층 각각 78개
(공포 74개, 천장 36개)

자료·문화재청

숭례문 약사 : 창건에서 복구까지

- ○ 태조 7년(1398년) 한양 도성의 성곽 축조와 함께 창건
- ○ 세종 29년(1447년) 8월~세종 30년 5월 개건 공사
  –숭례문의 터전을 높이고 연못 설치 등 중창 수준의 공사 추정
- ○ 성종 9년(1478년)~성종 10년 2차 개건
- ○ 1860년대 문루 보수
- ○ 1907년 9월~1909년 5월 숭례문 좌우 성곽 훼철
- ○ 1952년 6·25전쟁에 의한 숭례문 피해 복구
- ○ 1954년 숭례문 단청 보수
- ○ 1961년~1963년 전면 해체 보수
- ○ 2008년 2월 화재 소실
- ○ 2013년 5월 숭례문 복구

숭례문 이름, 오행사상에 따라 지어 '禮'는 남쪽과 '예를 숭상하라'는 의미

서울 4대문 및 보신각의 이름은 오행사상에 따라 지어졌다. 인(仁 : 동), 의(義 : 서), 예(禮 : 남), 지(智 : 북), 신(信 : 중앙)의 5덕(五德)을 표현했으며, 숭례문의 '례'는 여기서 유래했다. 동대문은 인(仁)이 들어가 흥인문(흥인지문), 남대문은 예(禮)가 들어가 숭례문이다. 즉, 숭례문의 의미는 '예(禮)를 숭상하라'는 것이다. 성리학 관점에서 '인'은 동쪽, '의'는 서쪽, '예'는 남쪽, '지'는 북쪽, '신'은 중앙이라고 보는데 숭례문은 남쪽에 위치하므로 인의예지신 중에 '예'를 넣은 것이다.

또한 숭례문은 현판(숭례문이라고 적힌 사각형의 패)이 세로로 되어 있다. 이것은 풍수지리설에서 남쪽에 있는 산은 주작(朱雀)산이므로 빈번한 화재가 발생한다고 하여 세로로 세우면 불을 억누를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숭례문 복구 관련 〈젊은이에게 보내는 편지〉

앞으로 600년 너희들 지금 남으로 가라

너희들 지금 남(南)으로 가라.
남쪽 큰 대문이 오늘 열린다. 닫힌 성문 밖에서 문 열리기를 기다리던 나무꾼이 아니다.
더는 추워서 떨지 말고 이제는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말라.
불탄 잿속에서 주작(朱雀)이 날개를 펴듯 다시 솟아난 600년의 기억.
그러나 이것은 과거를 위해 세운 달빛의 문이 아니다.
앞으로 600년 자유와 행복의 열매가 태양처럼 열리는 너희들을 위한 미래의 문이다.
나치가 무너지던 날 프랑스의 젊은이들은 개선문으로 달려갔고
동서의 벽이 사라진 날 독일 젊은이들은 브란덴부르크 문으로 갔다 하더라.
그러나 너희들은 아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 내일이 아니면 모레, 그보다 더 먼 글피와 그글피라 할지라도 좋다.
그날이 올 때까지 이 문을 향해서 뛰어라. 너희들 지금 남으로 가라.
하늬바람 부는 서쪽 돈의문(敦義門)에서는 의(義)를 배우고
북쪽 홍지문(弘智門) 뒷바람한테는 지(智)를 익혔다.
동트는 새벽 흥인지문(興仁之門) 새 바람이 불 때 너희들은 함께 아파하는 법, 기쁨을 나누는 마음 어질 인(仁)을 행했다.
그러나 오늘은 남쪽 문 마파람 부는 숭례문(崇禮門) 새 문 앞이다.
오랜만에 참으로 오랜만에 흩어진 옷깃을 여미고 무릎 꿇어 역사 앞에 큰절을 하라. 그동안 의롭다고 무례한 적 없었는가.
무엇을 안다 건방지고 남에게 베풀었다 버릇없이 굴지 않았는가.
거듭 태어난 숭례문처럼 예로써 몸을 씻고 다시 태어나 젊음의 지혜와 열정을 갑옷으로 싸라. 큰 대문 열리는 오늘 마파람 부는 날.
등뼈를 꼿꼿이 세우고 일어서면 너희 옷자락은 깃발처럼 나부끼고, 떠나는 배의 돛처럼 태양길이 열린다.
너희들 지금 남으로 가라.
여름 소낙비처럼 태양빛이 쏟아지는 남쪽 큰 대문이 빗장을 따고 활짝 열렸다.
뒤로 600년, 앞으로 600년 보아라. 대한민국 국보 제1호.
숭례문 너희들이 어릴 적 남대문이라 부르던 자랑스러운 문
이제는 너희들 차례가 된 숭례문이다.

글·이어령(전 문화부 장관)

세계 17위 경제규모… 성장 잠재력 우수

아시아–유럽 잇는 대표적 신흥시장으로 이슬람권 등 진출 교두보

5월 1일 한·터키 FTA가 발효됐다. 터키는 6·25전쟁에 참전한 이래 '형제의 나라'로 일컬어질 정도로 한국과는 정서적으로 각별함을 갖고 있는 나라다. 양국은 2010년 3월 FTA 협상을 개시한 이래 총 4회에 이르는 공식협상을 거쳐 2012년 8월 1일 최종 협정에 서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11월 국회 비준, 터키에서는 2013년 1월 의회 비준과 3월 내각 서명절차가 완료돼 이번에 협정이 발효됐다.

터키는 아시아와 유럽 양 대륙에 걸쳐 있는 나라다. 보스포러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유럽의 불가리아·그리스, 흑해 방향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루마니아·그루지야, 아시아 쪽으로는 아르메니아·이란·이라크·시리아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 문화권으로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중동시장에 대한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인종적·역사적 유대관계가 깊은 중앙아시아와 북아프리카 국가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터키를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라고 구분하는 배경이다.

최근 터키는 지정학적 장점을 최대한 살려가며 국제무역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2012년 터키 경제규모는 8,172억 달러로 세계 17위에 올라 있다. 브릭스(BRICs) 용어를 처음 썼던 골드만삭스는 2005년 브릭스에 필적할 만한 경제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터키를 포함한 NEXT11을, 2010년에는 MIKT(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터키)를 언급했다.

미국 상무부 또한 신흥투자시장으로 BEM(Big Emerging Market : 터키·방글라데시·이집트·인도네시아·이란·멕시코·나이지리아·파키스탄·필리핀·베트남·한국)을, 일본 브릭스경제연구소는 경제가 급성장할 국가로 VISTA(베트남·인도네시아·남아프리카공화국·터키·아르헨티나)를, HSBC는 CIVET(콜롬비아·인도네시아·베트남·이집트·터키)를 언급했다. 즉, 브릭스에 이은 포스트-브릭스 국가로 터키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공산품 7년 내, 자동차부품은 5년 내 관세 철폐

국제 투자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터키는 그동안 주위 국가들과 FTA를 맺어가며 영향력을 키워오고 있었다.

터키와 FTA를 맺은 나라들을 보면 이스라엘·마케도니아·크로아티아·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팔레스타인·튀니지·모로코·시리아·이집트·알바니아·그루지야·몬테네그로·세르비아·칠레·요르단·한국·레바논(미발효)·모리셔스(미발효) 등 18개국과 EFTA로 대부분 터키 주위에 위치해 있다. 원거리 국가는 한국과 칠레밖에 없다.

이는 다른 국가보다 한국과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데다 다양한 품목을 교역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쌓아왔기 때문이다. 한국으로서는 수출시장에서 경쟁 상대인 중국과 일본보다 먼저 터키와 FTA를 맺은 만큼 선점의 기회를 잡은 셈이다.

터키는 1995년 EU와 관세동맹(1996년 1월 발효)을 맺은 이래 EU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EU 수준에 한해 FTA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특히 한·EU FTA가 2010년 10월 체결(2011년 7월 발효)됨에 따라 EU도 우리나라에 가능한 한 조속히 터키와 FTA 협상을 체결할 것을 권유했다.

여타의 FTA와 달리 한·터키 FTA가 단 4차례의 공식협상만으로 체결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한·EU FTA가 체결된 상태이고 EU 가입을 앞둔 터키는 한·EU FTA와 비슷한 수준의 FTA를 체결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이다.

FTA 협정은 대개 기본협정 외에 상품협정·서비스협정·투자협정의 3개 분야로 이뤄져 있는데, 이번 한·터키 FTA 발효로 기본협정과 상품협정이 발효됐다.

양국은 상품협정 발효 이후 1년 이내 서비스협정과 투자협정 협상을 개시하고 또 1년 이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터키가 그간 체결한 FTA는 모두 상품 분야에만 한정돼 있어 한·터키 FTA의 서비스 및 투자협정 협상은 향후 터키의 기존 체결 FTA의 규범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012년 한국의 대터키 10대 교역품목 현황

	수출품목	금액(백만불)	비중(%)		수입품목	금액(백만불)	비중(%)
1	합성수지	395	8.7	1	기타석유제품	293	43.6
2	승용차	365	8.0	2	자동차부품	65	9.7
3	자동차부품	311	6.8	3	직물제의류	28	4.2
4	선박	295	6.5	4	편직제의류	19	2.8
5	건설중장비	256	5.6	5	정밀화학제품	16	2.4
6	평판디스플레이	167	3.7	6	기타비금속광물	13	1.9
7	기타플라스틱	140	3.1	7	가죽제가방	13	1.9
8	합성섬유	103	2.3	8	나프타	11	1.6
9	아연도강판	98	2.2	9	철강 및 비합금강형강	8	1.2
10	냉연강판	92	2.0	10	기타정밀화학제품	8	1.2
	소계	2,222	48.8		소계	475	70.5
	전체	4,552	100.0		전체	672	100.0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터키의 관세대상 품목은 전체의 50.3퍼센트이며, 평균 수입관세율은 농산물 61.0퍼센트, 비농산물 17.0퍼센트로 터키의 단순평균 수입관세율은 28.6퍼센트 수준이다. 터키는 EU를 비롯한 FTA 및 관세동맹 체결국, EU 및 WTO 규정에 대한 특혜관세제도(GSP) 적용 대상국, 기타 제3국으로 분류해 차등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제3국에 해당돼 비교적 높은 관세가 부과돼왔다.

한·터키 FTA는 상당히 큰 폭의 개방 내용을 담고 있는데, FTA 발효 후 10년 이내 한국은 수입액의 99.6퍼센트(품목 기준 92.2퍼센트), 터키는 수입액의 100퍼센트(품목 기준 89.8퍼센트)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다.

공산품에 대해서는 7년 이내 수입관세를 철폐할 예정으로 이 중 자동차는 1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해 7년 이내 비선형(초기에 관세 인하 폭을 크게 삭감하는 방식) 관세 철폐, 자동차부품은 5년 이내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섬유의 경우 화학섬유 및 직물에 대해 5년 내 관세를 철폐하고 현재 섬유에 부과 중인 20퍼센트의 수입관세를 즉각 철폐할 예정이다.

농산물의 경우 양국 민감품목(쌀·쇠고기·돼지고기·신선과일·양념채소 등)을 제외해 품목 수 기준 52.5퍼센트, 수입액 기준 96.7퍼센트에 대해 10년 이내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하지만 농수산물 분야 중 한국의 대터키 최대 수출품인 인스턴트커피를 포함한 김치·면류·소주에 대해서는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G

글·우종국(한경비즈니스 기자)

부처 간 협업 관리… 국정과제 성공 다짐

협업 과제 179건 선정해 이해 상충 수준 따라 유형별 관리

“사회가 다원화되고 또 복잡해지면서 국민의 어려움도 어느 한 가지 정책이나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부처가 협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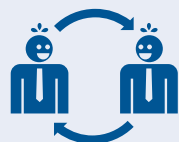
– 박근혜 대통령, 국무조정실 업무보고회에서

2013년 5대 전략과제

국정과제 관리·평가
“일이 되게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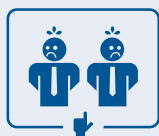
- **세부 과제·이행 계획 구체화** 5월 중 확정, 속도감 있게 실천
- **새로운 평가체계 구축**

140개 전체	국정과제 평가	성과지표 설정, 달성도 평가 신호등 체계 관리 (원활 / 지연 / 부진)
40개 조기 성과 예) 부동산시장 안정화	집중과제 평가	실시간 점검, 문제점 조기 발견(동행평가) 국조실·부처 합동 즉시 해결, 환류
5개 고질적·구조적 예) 학교폭력 예방	심층 평가	민·관 합동평가단 운영 문제 해결 시까지 지속 추적관리

- **국정과제 관리체계 구축**
  국정과제상황실 – 국정과제전략협의회(청와대), 국정과제추진협의회(국무조정실장 주재)

창의적 협업 추진
“일하는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 **179개 협업과제 선정** 부처 업무보고 98개 + 자체 발굴 81개
- **유형별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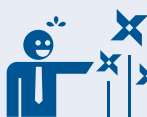
25개 전체 예) ODA총괄 조정	조정과제	부처 간 이견조정 필요 → 부처 이해를 넘어 정책 수요자 기준 조정
144개 예) 여수산단 폭발사고	협력과제	주관 부처 중심 협력 필요 → 주관 부처 권한·책임 강화, 부처 간 팀워크 제고
10개 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전략과제	다부처 관련, 핵심과제 → 국무조정실 중심 협의 추진

- **시스템적 협업 지원** 예산, 인사·조직 관리, 정보화
- **창의적 협업 지원체계 구축** 협업점검협의회(국무조정실장 주재)

선제적 갈등관리
“국정운영의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하겠습니다.”

- **69개 복합적 성격**

단계별	50개 현재 예) 반구대 암각화	19개 잠재 예) 사용후핵연료 처리	
유형별	15개 가치 예) 환경·문화·이념	54개 이익 예) NIMBY, PIMFY	
주체별	41개 국가–주민 예) 원자력발전소 건설	16개 국가–지자체 예) 안양교도소 재건축	12개 지역–지역 예) 낙동강 맑은 물 공급

- **역량제고를 통한 갈등해결, 잠재갈등 선제적 관리**

50개 현재갈등	**역량제고** 정부 갈등관리 원칙·체계 확립(매뉴얼 보급 등) 갈등관리제도 운영 내실화(갈등영향분석 등)
	갈등해결 국무조정실–부처 협력, 해결 추진 추진상황 점검·평가 및 피드백, 시급·중요 갈등 조정 지원
19개 잠재갈등	**사전발굴·선제대응** 모니터링 → 조기경보 → 갈등요인 제거

과감한 규제개선
“피부로 확 느끼게 하겠습니다.”

852건	508건	274건	66건	4건
국정과제 뒷받침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기타

- **규제완화 + 규제강화** 동시추진 (Two–Track)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창업 등

595건	257건
(70% 완화)	(30% 강화)

- **규제정비·심사 신속진행**(Fast–Track)

271개	45일 → 20일
규제완화 상반기 중 하위법령 개정	규제강화 심사절차 단축

- **현장중심 규제개선**
  민·관 협업으로 체감도 제고
  중앙정부 규제개선 → 지자체 신속 전파·이행
  (규제관리 통합정보시스템)

공직 기강 확립 및 소통 강화
“정부 성공의 반, 깨끗한 정부에 달려 있습니다.”

- **공직비리 척결**

취약분야	관행적 부조리	시스템
건설·세무 등 기획점검	민·관유착 지역토착비리 중점 점검	불투명한 기준·절차 발굴·정비

- **‘일’ 중심 복무기강 확립**

정책점검	청렴문화	사기진작
부처 이기주의 엄단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적 처벌관행 개선	적극 행정에 따르는 경미한 과오 면책

- **소통 강화**

내부	정책 혼선 방지	정보공유 정책 엇박자 방지 One Voice	청와대 – 부처 – 국조실 – 지자체
외부	정책 신뢰 제고	국민 현장 방문 현장중심 피드백	NGO 정례협의, 정치권 당정협의 파트너십 구축

부처 간 협업 강화. 국무조정실이 140개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한 부분이다. 국무조정실은 4월 30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이 업무보고를 한 것은 국무조정실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된 1998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부처 간 협업이 강조되면서 국정과제를 총괄·지원하는 국무조정실이 핵심 부처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이 정부 부처 중 맨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한 것도 앞선 26개 부처 업무보고에 대한 종합 분석을 통해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토대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5대 전략과제를 내놨다. 5대 과제는 ▶국정과제 관리·평가 ▶창의적 협업 추진 ▶선제적 갈등관리 ▶과감한 규제개선 ▶공직 기강 확립 및 소통 강화 등이다.

우선 국무조정실은 기존 주요정책 평가를 국정과제 평가로 전면 개편해 140개 국정과제 전체를 성과중심, 현장중심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서민 금융부담 완화, 부동산시장 정상화, 중소기업 성장지원 등 조기에 성과가 필요한 40개 과제는 부처 간 협업으로 집중 관리한다.

학교폭력 문제와 같은 난제는 매년 5개 안팎으로 선정해 국무조정실,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하고 현장 중심으로 해법을 도출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4월 11일부터 국무조정실 내 국정과제상황실을 본격 가동해 국정과제 추진·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 중이다. 상황실은 140개 국정과제 전체 추진 상황에 대해 삼색(초록·노랑·빨강) 신호등 체계로 진도와 달성도를 평가한다.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 179건도 선정했다. 그동안 26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된 98건과 자체 발굴한 81건이 포함됐다. 협업 과제는 부처 간 이해 상충 수준과 관계 기관 수에 따라 조정과제, 협력과제, 전략과제로 분류해 유형별로 관리한다.

협업 지원을 위해 정원의 10퍼센트 이상을 부처 간 경계 없이 보직 이동하는 교류정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매년 전 부처 정원의 1퍼센트씩, 5년간 5퍼센트를 협업 수요에 우선 배정하는 통합정원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협업 활성화에 따라 예산 편성·집행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우수 협업 부처에는 예산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협업점검협의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협업 과제를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4월 말 현재 총 69건의 갈등 과제를 선정해 각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69건의 갈등과제를 단계별로 보면 현재 갈등 상태에 있는 과제가 50건, 갈등이 예상되는 잠재갈등이 19건이다. 유형별로는 가치갈등이 15건, 이익갈등이 54건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갈등과제들에 대해 중립적인 제3자의 조정을 활용하는 등 유형별 맞춤 대응을 통해 갈등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잠재갈등의 선제 관리를 위해 주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갈등의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조기 경보체제를 가동해 원인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또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과감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개선은 창조경제·투자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와 시장경제 질서와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강화를 병행하는 투 트랙(Two Track) 전략으로 진행한다.

창조경제와 성장동력 분야 규제 595건은 완화하고 사회 안전과 경제민주화 분야 규제 257건은 강화한다. 창업과 신기술 분야는 필요한 것만 일부 정하고 나머지는 풀어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규제 정비와 심사를 신속히 진행해 상반기 하위법령 271개를 정비할 방침이다. 규제심사 절차도 종전 45일에서 20일로 크게 단축한다.

국무조정실은 이외에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정부,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는 데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발생한 작은 과오는 책임을 묻지 않고 우수공직자는 포상해 사기를 진작시킨다.

글·박기태 기자

2013년도 부처 업무보고의 핵심 키워드는 일자리·창조경제·협업·융합·안전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4월 18일 업무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창조경제·일자리 창출로 '국민행복 시대' 열겠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부처 업무보고가 막을 내렸다. 4월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조정실 업무보고를 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정부 첫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전 부처를 통틀어 가장 핵심이 된 주제는 일자리·창조경제·협업·융합·안전이었다.

1 일자리 전 부처를 아우르는 핵심 키워드는 일자리 창출이었다.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데 많은 부처가 공감했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조형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투자와 소비를 늘린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창조형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까지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10개를 추진한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해 신산업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국민 아이디어를 모아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연계하는 방법으로 신규 사업을 만드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2017년까지 새로운 일자리 40만 개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간·교통정보를 민간에 무료로 공개하는 오픈플랫폼 서비스로 일자리 4만6,000개를 창출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제도를 도입해 약 1만3,800개 일자리를 생성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5월 중 범정부 차원의 '국민일자리 행복 로드맵'을 마련한다. 청년·여성·중장년·장애인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을 도입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

2 창조경제 정부의 경제 부흥 전략은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청·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정책 협력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관계 기관 합동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TF'를 운영한다. 원격의료와 같은 서비스 분야에 IT(정보기술)를 융합해 창조형 서비스산업을 실현해나간다는 구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를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상상콘텐츠기금'을 조성한다. 이 기금으로 게임·음악·애니메이션·영화·뮤지컬 등 5대 콘텐츠를 집중 육성한다. 중소기업청은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를 진행해 국민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농식품 분야에서도 창조경제가 실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까지 농업인·국민체감형 연구개발(R&D) 로드맵을 마련한다. IT융합 비즈니스 모델 21개를 올해 안에 개발하고 R&D 투자 비중을 농식품 분야 예산 대비 10퍼센트까지 확대한다.

3 협업 각 부처들은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하게 협력하고 소통한다. 기획재정부는 부처 간 협업 창구로 '경제관계·대외경제장관회의'를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범부처 창조경제 TF' '유통구조개선 TF' 등을 꾸려 긴밀히 협업한다.

취약 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협조도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가족부와는 여성 친화적인 직업 훈련과 맞춤형 취업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부와 함께 문화예술교육과 체육교육을 활성화한다. 중소기업청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와 협업해 대학을 창업의 요람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국세청과 과세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FTA 활용·대응을 위한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4 융합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각 부처는 융합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융합 확산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4대 융합 신산업 육성방안'을 수립한다. 4대 융합 신산업에는 스마트 의료기기와 스마트가전, 인명구조 로봇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산업에 생명공학기술(BT)을 융합해 해양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해양생물을 활용한 신약과 신소재를 개발하고, 해운물류산업에 IT를 접목시켜 첨단물류산업을 육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 관광산업에 집중한다. 전통문화 체험관광과 음악·한식·패션 등을 연계시킨 다채로운 한류관광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다. 또 MICE* 산업에 크루즈, 의료 등을 접목시킨 융·복합 관광·레저산업을 지원한다.

5 안전 4대악 척결을 위해 각 부처는 안전을 강화하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안전행정부는 범정부적인 '4대악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 4대악별로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해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하기로 했다. 범죄 위험지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안전지도'도 만든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근절에 나선다. 올해를 '성폭력 예방교육 원년'으로 정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에 힘쓴다. 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속하게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2017년까지 60개소로 늘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관리에 집중한다. 국무총리실·식약처·농림축산식품부 등 범정부 차원의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출범시켜 대대적으로 불량식품을 단속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을 지난해 7.3퍼센트에서 올해 8퍼센트까지 늘린다. 관세청은 불법물품의 밀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수입 농산물이 식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G

〈공감 코리아〉 제공

MICE* :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신조어. '비즈니스 관광'이라고도 함.

한·미 동맹 60주년 맞아 신뢰 기반한 새로운 미래 설계

대규모 경제 사절단 동반… '경제·안보' 파수꾼 역할

'Bound by Trust, Forward Together(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신뢰 동맹).' 미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내건 슬로건이다. 이번 순방길이 '신뢰에 기반한 한·미 동맹 미래의 설계'라는 의미다. 영어로 슬로건을 만든 것은 미국인들에게 이번 정상회담이 가지는 의미를 압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박 대통령의 외교 기조인 '신뢰'를 강조하는 의미도 포함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 60주년과 궤를 함께한다. 정상회담이 향후 동맹 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발전시키는 동시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 등에 있어 공조를 강화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북핵을 비롯한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대한민국의 신뢰 외교와 주요 정책에 대한 미국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적 의미뿐 아니라 경제적 의미도 깊다. 이번 미국 방문에는 대규모 경제 사절단이 꾸려졌다. 총 52명으로 구성된 이번 사절단은 과거 정부의 미국 방문 수행 규모가 20~3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배에 가깝다. 특히 각종 경제 단체장을 포함한 재계 총수와 중견·중소기업인, 금융계, 여성 경제인, 벤처기업인 등 경제계 인사들이 망라됐다.

경제 사절단은 한·미 동맹 60주년에 맞춰 한국 '경제·안보'의 민간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 핵 문제에서 비롯된 한반도 리스크와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활동을 한다.

특히 이번 경제 사절단에는 한재권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이 참가 중이다. 한 회장은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도 국내산으로 인정해줄 것을 미국 재계에 설명하고 있다. 북한 문제와 상관없이 민간 경제 교류는 활발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정부 의지를 내포한 활동이다.

청와대 페이스북, 첫 해외순방 기념 퀴즈 이벤트

한편, 청와대는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 순방 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 첫 해외순방 기념 퀴즈' 이벤트를 벌인다. 이번 미국 방문에서 박 대통령이 이동하는 총 비행거리를 맞히는 문제다. 대통령 순방동선(포스터 참조)을 참고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응모방법은 간단하다. 청와대 페이스북 관련 포스트 댓글란에 객관식 정답 번호(❶ 42,195킬로미터 ❷ 7,942킬로미터 ❸ 27,231킬로미터 ❹ 828,255킬로미터 중 하나)와 함께 재치 있는 글을 올리면 된다. 정답을 올린 페이스북 친구 중 5명에게는 청와대에서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주어진다. 정답과 당첨자 그리고 선물은 5월 12일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다.

5월 5일 서울을 출발한 박 대통령은 뉴욕·워싱턴 DC·로스앤젤레스를 거쳐 5월 10일 5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다. G

글·박상주 기자

청와대 페이스북 www.facebook.com/CheongWaDae

기획특집

국민이 행복한 나라 '문화융성 대한민국'

행복을 키우는 ☐ 경제를 키우는 ☐ 갈등을 없애는 ☐ 국격을 높이는 ☐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기고(2010년)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2011년)했다. 하지만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경제규모는 커진 반면 개인의 삶의 만족도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 시대 가난에서 벗어나 우선 먹고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문화를 통해 국민을 행복하게 하자는 생각은 늘 뒷전으로 밀렸다. 그러나 이제 시대정신이 변했다. 문화를 국가발전의 부차적인 요소로 생각하던 시대는 지났다. 문화가 정치·경제 등과 함께 나라를 부흥시키는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를 풍성하게 하는 것 자체가 정부의 주요 국정목표가 됐다. 정부는 이를 '문화융성'이라고 요약한다.

문화융성은 문화가 가진 다양한 가치와 힘을 사회 전 분야에 확산시켜 개인·사회 및 국가발전을 이루자는 것으로 네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문화의 힘은 ▶행복을 키우는 문화 ▶경제를 키우는 문화 ▶갈등을 없애는 문화 ▶국격을 높이는 문화 등이다.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행복을 키우는 문화'

좋은 나라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다. 권력이 있고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듯 국제 사회에서 국가의 정치적 힘이 크고 경제적으로 풍요롭다고 해서 국민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 국민이 느끼는 삶의 질과 행복의 수준이 높아야 좋은 나라다.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국민이 한 단계 높은 행복을 느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정서적 만족과 정신적 충만감이다. 바로 문화만이 만들어줄 수 있는 행복이다. 문화향유 계층도 확대돼야 한다. 경제력을 갖춘 일부 국민만 문화를 향유하는 것을 '국민행복'이라 부를 수 없다.

지역·계층·연령에 따른 구분 없이 국민이 보편적으로 문화를 창조하고 누리며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5년 안에 문화 재정을 전체 국가 재정의 2퍼센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국민의 보편적인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문화기본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스포츠·관광·미디어 등 '경제를 키우는 문화'

문화를 소비적인 것으로 이끌어서는 문화융성을 지속할 수 없다. 창조와 혁신의 원천인 문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가치, 즉 일자리와 시장 및 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 문화가 경제 논리에 밀려 침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문화가 경제를 키워야 한다.

문화융성을 위해서는 문화콘텐츠와 관광산업을 육성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일자리가 마련돼야 한다. 이들 분야는 창조적인 과학기술과 상상력 넘치는 인문학이 융합되면서 산업의 부가가치와 창조성이 발현되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여기에 문화콘텐츠가 접목돼야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쇠락한 경제에 대한 돌파구를 문화와 스포츠·미디어·관광 등의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에서 찾았다. 한국의 새로운 경제 육성책으로 창조경제가 부상하는 지금 문화는 그 정점에서 한국 경제를 키울 핵심 인프라이자 토대로서 기대를 모은다.

긍정 에너지 발산 '갈등을 없애는 문화'

한국사회 주요 문제 중 하나가 '갈등'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갈등, 민주화 과정에서 불거진 사회적 갈등 등이 여전하다. 도시화로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각종 사회적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이른바 '앵그리 사회'로 접어들면서 '묻지마 범죄' 등이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영국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1854~1900)는 "국민적 증오심은 문화가 얕은 나라일수록 심하다"고 말했다. 문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국민의 증오심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 마약과 범죄조직 간 다툼으로 절망에 빠져 있던 베네수엘라의 한 빈민촌은 어린아이들이 만든 오케스트라(엘 시스테마)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가진 도시로 변했다. 한국 역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할 예정이다. 예술·체육·관광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적극 육성해 갈등에 쏟을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발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 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 문화의 세계화 '국격을 높이는 문화'

문화는 국격을 높이는 기초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지만 국가브랜드 가치는 15~19위 수준에 불과하다. 진정한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굳히기 위해서는 국가브랜드를 높일 필요가 있다. 국가브랜드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는 결국 한 나라의 문화 수준이다. 정부는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통해 지구촌 행복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통문화를 복원·계승해 한류를 다양화하고 우리의 가치를 세계적 모범으로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국내에서는 이주민 등 소수자의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외에서는 외국과의 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등 한국 문화의 외연을 크게 확장할 계획이다. G

글·박상주 기자

문화융성을 위한 7대 키워드

1 문화 창의성 제고
창의적 문화콘텐츠 산업 역량 강화
예술가들의 사회 진출 확대
창의적 예술교육의 활성화표현의 자유 확대
시민의 문화 접근권 확대

2 한국문화의 세계화
한류의 지속 가능한 확산
전통문화예술 자원의 세계화
비주류 문화권의 문화교류 확대

3 문화·예술·기술의 융합
문화·예술·기술 융합 콘텐츠 연구개발 강화
융합적 문화창작 콤플렉스 조성
문화·예술·기술 특성화 창조인력 양성

4 문화 다양성 증진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 제정
소수문화의 공존과 상생
문화 독점 해소와 비주류 문화 활성화

5 문화 분권의 실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권역의 문화특성화 전략
지역문화 자원과 문화관광 연계

6 문화 권리의 보장
문화기본법 제정
표현의 자유 확대
시민의 문화 접근권 확대

7 문화 복지의 확대
예술인복지법 개정
문화커뮤니티 센터 건립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민 행복수준 높이는 게 문화융성"

문화융성이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 어젠다로 부각되면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융성의 의미와 등장 배경, 문화융성 실현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문화융성은 문화가 가진 다양한 가치와 힘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의 기본원리로 작동하고, 국가발전의 토대를 이루며 국민 개개인의 행복 수준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융성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문화융성일까.

유 장관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방면의 문제들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발전 모델이나 해법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새로운 접근과 시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문화융성의 등장 배경을 짚었다.

"문화융성은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문화적 자원과 그 속성인 창의성, 다양성, 포용과 상생 등의 가치들을 확산시켜 국가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활용하자는 것이지요."

문화융성에서 말하는 '문화'란 어떠한 가치의 문화를 의미하며, 문화융성을 위한 정책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선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매개체이자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개인의 행복 수준을 높이는 문화를 의미합니다. 둘째, 창조경제의 핵심인 상상력과 창의성, 그리고 감성을 길러내는 원천으로서 국가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문화, 셋째, 타인과의 소통과 신뢰, 나눔과 배려 등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는 과정으로서의 문화를 뜻하며, 넷째, 한류를 통해 드러났듯이 국가브랜드와 이미지 등 국격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문화입니다. 문화융성의 정책대상은 기존의 문화유산,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등에서부터 정신문화, 사회통합, 창조경제, 창의교육 및 국토개발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합니다."

여러 문화 가치 가운데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선순환시키는 가치가 가장 먼저일 듯합니다. 이 기능을 강화할 방안이 있는지요?

"문화향유 기회를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민 모두가 차별과 장애 없이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문화를 자유롭게 즐기며, 이를 통해 나눔과 배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국민의 자율성, 창의성 및 다양성을 증진하고 포용과 배려, 소통과 신뢰 등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집행하고 평가할 계획입니다."

문화패스·문화여가카드·작은영화관 등 피부에 와 닿는 문화복지정책들이 눈길을 끕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격이 높아졌지만 행복지수로 표현되는 국민의 삶의 질은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발표 결과 24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정책은 문화를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삶의 만족을 주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외계층이 삶의 현장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나눔과 배려가 활성화된다면 개인과 사회의 행복을 높이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최근 정부 정책에서 문화와 교육의 융합이 두드러집니다. 학교 교육에서 특히 예체능 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학교 체육·문화예술 교육은 학생들의 사회성·창의성과 바른 인성을 길러주고,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행복한 학교 조성에 큰 역할을 합니다. 이에 우리부는 학교 밖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의 관리를, 교육부는 주로 학교 내 학생 수요를 담당하여 학교 예술강사 지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문화와 교육의 융합을 강화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콘텐츠코리아랩을 설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콘텐츠산업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적은 자본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창조산업입니다. 그간 초기 창업기업 대상의 지원정책은 있었지만 창업 이전의 상상력과 아이디어 단계부터 지원하는 정책은 없었습니다. 이에 상상력·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창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줄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콘텐츠코리아랩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콘텐츠 장르 간, 순수예술, 첨단기술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실험과 시행착오를 용인하는 열린 공간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며, 2014년 상반기에 문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작권 보호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기술의 발달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환경을 반영해 온·오프라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온라인 사이트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상설 단속반을 운영하여 온·오프라인 불법저작물과 복제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상습적이고 영리적인 불법복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범에 준하는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과 더불어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중소기업을 찾아가 안내해주는 예방활동도 하고 있으며 국민이 불법복제물을 신고할 수 있는 국민오픈 모니터링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격을 높이는 문화의 가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구촌의 한류 열풍 지속을 위한 정책들이 궁금합니다.

"한류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직접 관리할 사안이 아닙니다. 한류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문화콘텐츠가 더욱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조력자·조정자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부처는 업계가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창작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한류가 대중문화뿐 아니라 한국 문화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쌍방향의 호혜적 문화 교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화재로 소실됐던 숭례문이 복구되어 국민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전통문화 차원에서 국격 높이기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2008년 화재로 훼손된 숭례문 복구는 국민의 문화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우리 전통문화를 더욱 다듬고 꾸준히 해외에 소개하는 노력과 전통문화의 계승·보급이 필요합니다. 전통문화의 산업화를 위해 시장을 조성하고 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국립국악원 연희마당에서 '팔도연희유람'(4.27~5.18, 매주 토요일)과 '별별연희'(5.25~6.29, 9.7~10.26, 매주 토요일)가 열리는 등 전국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열립니다. 가족이 함께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글·박경아 기자

주부의 인문학적 삶

인천 부개도서관 서평 동아리… “가족 위해 책 접하다 보니…”

인천시 부평구 부개도서관의 서평 쓰기 동아리 '그녀들의 책수다 책톡톡' 회원들은 자신들의 삶을 가꾸고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자발적 서평 쓰기를 하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부개도서관. 지난해 9월 지상 3층 연면적 1,450평방미터 규모로 개관한 이곳 1층 어린이열람실에는 엄마와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특별한 서가'가 마련돼 있다. 책과 서평이 나란히 진열된 서평 코너다.

이곳의 서평은 부개도서관 자원활동가 서평 쓰기 동아리 '그녀들의 책수다 책톡톡'(이하 책톡톡) 회원 9명이 직접 쓴 아마추어 서평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들 모두 초·중·고생 자녀를 키우고 있거나 키워낸 전·현직 학부모인 만큼 서평 역시 엄마의 눈높이에 맞춘 자유롭고 친근한 형식의 글이 대부분이다.

“뻔한 착한 이야기가 싫증나셨나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생각하게 하고 웃으며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반전 스토리. 착하다는 게 뭘까 생각해보게 만드는 초등학생용 그림책. 정답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물음을 던져줍니다. 은지맘 추천.”

“무분별한 남획과 지구온난화로 사라져버린 명태! 바닷물 섭씨 1도의 변화는 물고기한테는 몸이 데일 정도의 크나큰 변화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중략) 명태가 동해 앞바다로 다시 오길 희망하면서 이 책을 소개합니다.”

'책톡톡'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든 자발적 서평 쓰기를 표방한다. 따로 추천도서를 정해놓고 다 같이 읽은 뒤 독후감을 쓰는 활동은 하지 않는다. 의무감에 의한 활동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다.

회원들은 일주일에 한두 차례 반나절씩 돌아가며 도서관 책 정리를 돕는 한편, 틈틈이 읽은 책에 대한 서평을 열람실 한쪽에 놓인 A4 반절 메모장에 자유롭게 쓴다. 때로는 메모지 한 장을 빽빽한 글자로 가득 채우고, 큼직한 글씨로 소감 몇 줄만 남길 때도 있다.

'책톡톡'은 현재 일반 이용자들은 가입할 수 없고 부개도서관 자원활동가만 가입할 수 있다.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세 자녀를 돌본다는 전윤이(48·인천시 부평동)씨는 “처녀 때는 책을 많이 읽었는데, 결혼한 뒤에는 아이들 키우다 보니 책 접할 시간이 없었다. 책은 못 읽더라도 책에 대한 끈을 놓고 싶지 않아서 자원활동가로 활동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렇게 '책톡톡'은 올해 초부터 활동을 시작해 5월까지 25편의 서평이 모였다. 부개도서관에서는 서평이 좀 더 모이면 올 하반기쯤 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수요일마다 2시간씩 '도서관 학교' 운영

부개도서관의 자원활동가 지원담당인 강윤경 사서는 “한 달에 한 번 동아리 모임을 겸해 월례회의를 갖는다”며 “매번 활동하는 사람들끼리 한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다. 봉사하는 시간도 제각각”이라고 소개했다.

이용자들은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다. 초등학교 1학년 딸과 도서관을 찾았다는 최자연(36·부개동)씨는 “엄마 입장에서 아이에게 책을 권하거나 소개할 때 참고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개관한 부개도서관은 개관한 달 말부터 11월 초까지 6주에 걸쳐 매주 수요일마다 2시간씩 '도서관 학교'를 운영했다. '도서관 학교'는 부평구 내 6개 구립도서관(부개도서관·부개어린이도서관·부평기적의도서관·삼산도서관·갈산도서관·청천도서관)에서 하는 자원활동가 양성과정으로, 부평구 거점 도서관인 부개도서관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활성화와 평생학습 진흥이 목적이다.

지난해 부평구 전체에서 80명의 자원활동가가 양성돼 이 중 15명이 부개도서관을 선택했다. 양성과정을 마친 활동가들은 자신들의 희망 도서관을 선택할 수 있다.

어린이열람실을 정리하고 있는 책톡톡 회원

'책톡톡'은 지난해 부개도서관을 선택한 자원활동가들이 보수교육 프로그램 중 '서평 쓰기' 과정을 이수한 뒤 자발적으로 결성한 동아리다. 활동 초기 15명의 회원은 중간에 이사와 취업 등으로 그만둬 9명이 남았다. 모두가 주부다.

동아리 이름도 '주부들의 수다'에서 시작됐다. 이들의 '수다'는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다. 도서관 내 다른 소모임에서 프로그램 진행을 돕는다든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다.

부개도서관 자원활동가 회장 정미애(39·부개동)씨는 “요즘 카톡이 대세잖아요. 거기서 '톡'자를 빌렸죠. 그리고 다 여자들만 있어서 '그녀들의 수다'라고 했어요”라고 말했다.

참가 동기도 제각각이다. 자원활동가 조현숙(45·구산동)씨는 “아이를 데리고 도서관에 자주 데리고 올 생각으로 자원활동에 지원했죠. 엄마가 도서관에서 활동하면 아이도 책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사적인 동기로 시작했죠”라며 웃었다.

자원활동가 모집공고는 도서관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내고 거리에 포스터도 붙인다. 방문접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온라인 접수도 받지만 방문접수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개도서관은 올 하반기에 부평구 내 40개소 이상의 작은 도서관·문고·학교도서관 운영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활동에 초점을 맞춘 심화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희수(48) 부개도서관장은 “인문학이 배경이 되는 도시를 위한 활동”이라며 “도서관은 모든 주민을 위한 공간이다. 주민들이 도서관을 통해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남창희 객원기자 / 사진·지미연 기자

우리 가락 "좋을시고" 우리 농산물 "더 좋을시고"

국립국악원·농림축산식품부 손잡고 장터와 풍류마당 어우러진 주말 '연희난장' 기획

4월 27일부터 매주 토요일 정오면 서울 서초동 국립국악원 앞마당에서 특산물 장터가 열린다.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직거래장터인 연희난장이다. 연희난장은 예술과 문화가 만나는 공간이다.

4월 27일 연희마당에서 열린 첫번째 공연은 고성오광대보존회에서 준비했다. 국립국악원 앞마당에 마련된 특산물 직거래장터도 성황을 이루었다.(오른쪽)

"자, 따라해보세요. 덩덕~쿵덩덕!"

4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국립국악원 앞마당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즉석 국악교실이 열렸다. 부평 국악교실의 신정순 원장은 북과 장구를 잡고 주위에 둘러앉은 어린이들에게 흥겨운 우리 가락을 가르쳤다. 열심히 북과 장구를 두들기는 아이들 바로 뒤에는 손에 채소와 생선이 가득 담긴 장바구니를 든 부모들이 서 있었다. 이들은 국립국악원 앞마당에서 열린 직거래장터인 연희난장을 방문한 가족들이었다.

연희난장은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직거래장터로 공연과 특산물 쇼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연희난장에는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찾았다. 신정순 원장은 장터의 흥을 띄우기 위해 참석한 국악인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국악 전공자로서 아이들이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더욱 많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일러스트·국립국악원

전국 특산물 직거래하고 풍류극장 신바람은 덤

국립국악원은 국악 교실 외에도 각종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자리를 곳곳에 마련했다. 행사를 진행한 국립국악원의 김명석 장악계장은 "국악 공연이나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는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지만 이 둘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돕는 효과를 내는 사례는 찾기 어려웠다"며 "이번 행사가 도시민과 농민이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립국악원에서는 '연희풍류극장'도 문을 열었다. 사계절의 정취와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연희마당에서는 국립국악원 연희부와 북청사자놀음, 임실필봉농악, 진주삼천포농악, 평택농악, 대전웃다리농악 등 전국의 연희단체들의 공연이 매주 토요일마다 펼쳐진다.

4월 27일 연희마당에서 그 첫번째 공연이 열렸다. 오후 1시 30분이 되자 흥겨운 농악과 함께 다양한 표정의 탈을 쓴 광대들이 무대에 등장했다.

공연은 고성오광대보존회에서 준비했다. 낙동강 서쪽 지역에서 비롯된 오광대는 양반과 파계승에 대한 풍자와 처첩 문제 등을 서민의 시각에서 신랄하게 풍자한 특징이 있다. 광대들은 앞에서 허세를 부리지만 뒤로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양반의 모습을 꼬집으며 관중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오후 3시에는 평택농악보존회에서 준비한 농악 공연이 펼쳐졌다. 평택은 소샛들이라는 넓은 들을 끼고 있어 예부터 농산물이 풍부한 지역이었다. 여기에 평택 근처의 청룡사는 일찍부터 사당패들의 근거지가 되어 조선 말기 농악의 중심지로 꼽히던 장소다. 공연 시작 전부터 국립국악원 인근과 장터 곳곳을 돌며 분위기를 띄운 평택 농악패들은 구경꾼과 함께 어우러지는 신명 나는 공연을 선보였다. 관람객들은 주최측에서 준비한 떡과 막걸리 등 잔치 음식을 먹으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국립국악원 앞마당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준비한 다음 민속놀이와 전통공연을 펼치는 아이디어는 국립국악원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 준비했다.

연희풍류극장 개관 소식을 접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안을 하자 국립국악원이 흔쾌히 받아들였다. 한국 전통문화를 활용해서 도시와 농촌을 이어주는 상생과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속놀이부터 연희 체험까지 다양한 민속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연희마당은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4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진행되고 여름에는 잠시 쉬는 기간을 갖는다. 하반기가 시작되는 9월 7일 다시 문을 열어 10월 26일까지 열린다. G

글·조용탁 기자 / 사진·지미연 기자

연희마당 공연 일정

5. 11 (토)	5. 18 (토)
하회별신굿놀이, 임실필봉농악 강릉단오제	북청사자놀음, 대전웃다리농악 밀양백중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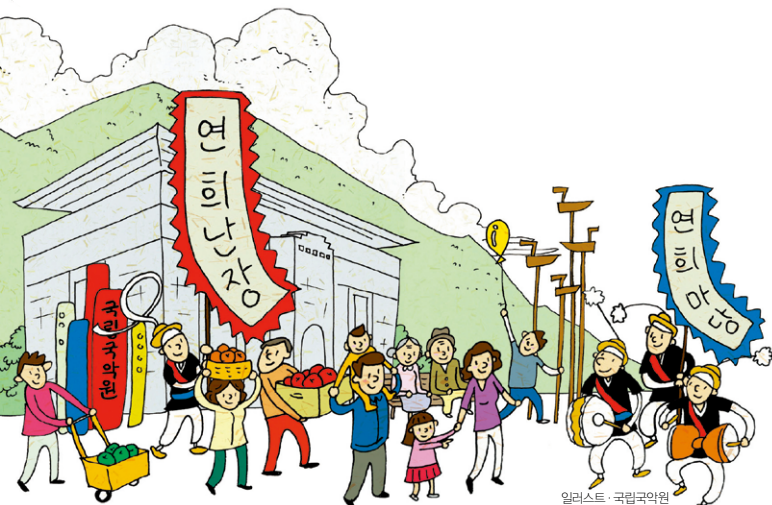
별별연희 (상설공연)	**한여름 밤의 연희**
5. 25~6. 29(6회) 9. 7~10. 26(7회) 매주 토요일 오후 1시~6시	8. 24/8. 31 토요일(2회)

직거래 판매 대표품목

- **시흥시** 연근, 연근인절미, 연잣스넥
- **가평군** 백잣, 황잣
- **증평군** 단호박, 말린 버섯, 인삼튀김
- **고창군** 복분자, 천일염, 봄나물
- **영주시** 사과, 복숭아, 생강
- **거창군** 도토리, 메밀묵, 표고버섯
- **진도군** 건홍합, 홍새우, 울금환
- **예산군** 블루베리유과, 사과약과, 사색유과
- **포천시** 포기김치, 갓김치, 백김치
- **옥천군** 포도, 곶감, 유정란
- **부안군** 뽕막걸리, 멸치액젓, 새우젓
- **순창군** 고추장, 된장, 청국장
- **상주시** 한우, 곶감, 오미자청
- **여수시** 쥐치포, 장어구이, 가오리구이
- **청양군** 고춧가루, 참기름, 칡즙

오시는 길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매시간 30분 간격으로 남부터미널역 5번 출구에서 국립국악원 셔틀버스 운행

문의 ☎ 02-580-3300

'하우스콘서트'는 말 그대로 집에서 열리는 음악회다. 일반 공연과는 달리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다.

하나 된 예술가와 관객 공연문화 새 지평 연다

즉흥연주가 박창수씨 '하우스콘서트' 11년째 열어 관객과 숨결까지 소통

웅장했다. 세상의 소리를 모두 합쳐놓은 듯한 신비감마저 들었다. 이제껏 공연장 객석에서 접하던 연주 소리와는 확연히 달랐다. 건반 끝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과 마룻바닥을 울리는 전율은 가히 압도적이었다.

4월 30일 늦은 저녁에 찾은 서울 도곡동의 녹음 스튜디오 '율하우스.' 35평 남짓한 공간을 '비범한' 피아노 선율이 가득 메웠다. 연주의 주인공은 작곡가이자 프리뮤직(즉흥연주) 연주가인 박창수(49)씨다. 박씨는 20분 넘게 피아노 앞에 앉아 즉흥적으로 연주를 이어갔다. 혼신의 힘을 기울인 탓일까? 피아노줄이 끊어져 있다.

"기존에 듣던 소리와는 많이 다르죠? 이게 바로 '하우스콘서트'의 묘미예요. 이곳에서는 연주자의 숨소리와 땀방울 떨어지는 소리, 미세한 음정의 변화까지 들을 수 있죠."

연주를 마친 박창수씨가 말했다. '하우스콘서트'는 그가 들여온 공연 형식으로 말 그대로 집에서 열리는 음악회를 의미한다. 일반 공연장과 달리 무대와 객석에 경계가 없다. 관객들은 의자 대신 마룻바닥에 둘러앉아 연주를 감상한다. 연주자와 관객들의 거리는 1미터도 채 되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예술가와 관객들이 부딪치고 만들어내는 소리와 연주자의 숨결 하나도 예술로 승화된다. 예술가와 관객 간의 진정한 소통이 이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모두를 위한 예술의 장 여는 게 꿈"

2002년 7월 서울 연희동 자택의 2층을 개조해 '하우스콘서트'를 시작한 박씨는 2009년 이곳으로 옮겨왔다. 현재까지 345회의 공연이 열리는 동안 1,300명이 넘는 예술가와 2만여 명의 관객이 다녀갔다. 장르는 국악·성악·대중음악·클래식 등 다양하다. 피아니스트 김선욱·조성진부터 가수 강산에, 미국 첼리스트 에드워드 애론 등 국적과 장르를 불문한 예술가들이 참여했다.

박씨는 하우스콘서트를 18세기 프랑스에서 주를 이뤘던 '살롱문화'와 1960년대 미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난 '플럭서스 운동(Fluxus)'에 빗대어 설명했다.

소수의 지식인과 예술인, 부르주아들이 모여 토론하고 예술을 즐기던 살롱문화는 좁은 공간에서 연주자와 관객이 함께 예술을 향유하는 하우스콘서트의 형식과 유사하다. 또한 실험적 전위예술을 표방한 플럭서스 운동은 음악과 시각예술을 다양한 퍼포먼스로 표현하며 관객들을 끌어들였는데, 이는 무대와 객석이 분리돼 있는 일반 공연장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박씨는 "하우스콘서트는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났다는 점과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종의 독립예술이자 예술가와 관객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는 점에서 살롱문화의 회귀"라고 말했다.

그는 온 국민이 예술을 쉽게 즐길 수 있는 장을 꿈꾼다. 일반 클래식 공연이 어린아이의 입장을 제한하는 것과 달리 하우스콘서트는 8세 이하 어린아이의 참여도 열어두고 있다.

지난해 그가 일주일 동안 진행한 '대한민국 공연장 습격작전'도 그의 평소 신념과 맥을 같이한다. 지방의 공연장을 찾아가 무료로 공연을 열어준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그는 전국 23곳의 공연장에서 일주일 동안 100회의 공연을 열었다. 물론 형식은 하우스콘서트와 동일했다. 관객들을 객석이 아닌 무대로 끌어올렸다. 57팀의 예술가들이 출연료 없이 무대에 올랐다.

박씨는 "전국에 400곳이 넘는 공연장이 있는데, 1년 동안 제대로 운영이 되는 곳은 극히 드물다"면서 "지방 공연장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연주자들에게는 공연의 기회를 선사하는 동시에 지방 관객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진행된 기획"이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불가능할거라고 말했다. 실제로 관객을 무대 위로 끌어올린다는 새로운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관계자들이 많아 극장을 섭외하는 데 애를 먹었다. 하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박씨는 "관객들로부터 '정말 행복했다'는 피드백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올해에도 특별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오는 7월 12일 하루 동안 100회의 음악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예술가들의 섭외는 이미 끝났고, 지금은 극장들을 섭외 중이다. 아울러 그는 1년 동안 100개 극장에서 50회씩 공연을 올리는 꿈도 가지고 있다.

하우스콘서트를 기획한 박창수씨는 예술과 관객과의 소통을 지향한다.

박씨는 하우스콘서트가 예술가와 관객들의 소통은 물론 교육의 장도 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우스콘서트에서는 장난꾸러기 여덟 살 아이도 조용히 공연에 집중하죠. 자신이 무대에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자연스럽게 교육이 이뤄지죠."

여러 면에서 그의 작업은 복합적이다. 거대 자본으로부터 벗어난 독립예술의 범주에 속하는 동시에, 다수와의 소통을 지향하고 모든 소리와 장면을 디지털 기계로 녹음하고 촬영하면서도 소리는 자연 그대로의 아날로그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국악·대중음악·클래식 등 장르의 벽을 허문 예술에 기존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공연의 옷을 입혔다는 면에서 그의 작업은 융·복합적이다.

박씨는 이러한 시도를 예술의 뿌리를 다지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뿌리가 튼튼하면 가지 끝에 열매가 제대로 열리기 마련이에요.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예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문화의 뿌리를 다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글·백승아 기자

콘텐츠 유료화에 도전하는 만화가 허영만 화백

"공짜가 없어져야 만화도 미래가 있어요"

허영만 화백은 포털의 공짜 콘텐츠 서비스와 결별하고 스마트폰 유료 콘텐츠에 승부를 걸었다.

〈타짜〉 〈식객〉으로 유명한 만화가 허영만(66) 화백이 모바일(카카오 페이지)에서 만화를 유료(월 1천원)로 연재하기 시작했다. 허영만 화백은 "한국 만화의 미래를 위해 최고참인 내가 총대를 메고 콘텐츠 유료화에 도전한다"고 했다.

그는 1966년 〈집을 찾아서〉란 작품을 시작으로 〈타짜〉 등 100여 편의 연재만화를 그렸다. 그의 손끝에서 태어난 그림은 한국 콘텐츠산업의 젖줄이었다. 〈타짜〉 〈식객〉 〈각시탈〉 〈미스터 손(날아라 슈퍼보드)〉 〈비트〉 〈아스팔트 사나이〉 등 20개가 넘는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의 원작이 그의 만화다. 그가 만든 콘텐츠에서 나온 매출 합계는 수천억원에 달한다.

그런 그가 "마지막으로 모바일 만화 연재를 시작했다"며 "실패하면 모든 연재를 중단하고 작업실을 닫겠다"고 했다.

"인터넷 포털과 출판업계에 한 달 연재료로 3천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은 개인 허영만이 그 돈을 받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내 만화는 공동작업의 산물입니다. 우리 팀은 7명입니다. 알다시피 〈식객〉은 사진이 들어간 만화죠. 사진 찍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채색 작업에도 손이 갑니다. 내가 한 푼 안 가져가도 한 달 작업실 운영에 3천5백만원이 필요합니다."

과거 그를 모셔가기 위해 경쟁을 벌였던 스포츠지들은 이제 그만한 돈을 쓸 여유가 없다. 포털과의 경쟁에서 밀려 힘이 빠졌다. 더욱이 스마트폰이 스포츠신문을 더 궁지로 몰아넣었다. 예전 지하철에서는 스포츠신문을 읽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손에 스마트폰을 쥐고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본다.

현재 문화 권력 혹은 문화 경제의 중심인 포털은 공동작업을 하는 허 화백에게 다른 사람과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포털 다음에서 〈말에서 내리지 않는 무사〉를 연재했습니다. 다음은 내게 특별대우를 했어요. 다른 만화가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돈을 받았지만 그래도 월 1천만~2천만원 적자가 났습니다. 제대로 만화를 그리려면 팀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쟁 난 뒤 군인을 모집하면 늦어요. 또 늘 전쟁 상황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한국 최고의 콘텐츠 제작소인 허영만 작업실은 약 2년간 매달 몇천만원씩 적자를 봤다. 허 화백은 인쇄만화 시대가 끝나고 인터넷 만화 시대가 올 때 만화가들이 실수를 했다고 본다.

"돈 몇 푼 받고 만화를 무제한 무료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에선 만화가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공들여 고급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선 매달 최소 수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짜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포털은 콘텐츠 공급 대가로 수천만원을 주지 못합니다. 제대로 작품을 만들려면 포털과 일할 수가 없습니다."

"포털과는 일 못해… 스마트폰서 승부 볼 작정"

PC와 인터넷, 포털 시대가 오면서 공짜가 아닌 콘텐츠는 설 곳을 잃었다. 우리 사회가 시간과 돈, 노력을 투자해 만든 고급 콘텐츠를 소화할 수 없는 곳으로 변한 것이다. 그래서 PC 대신 스마트폰에서 다시 승부를 볼 작정을 했다.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지난 4월 9일 콘텐츠 판매장터 카카오 페이지를 시작할 때 〈식객2〉를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4만 명이 보면 카카오에 줄 수수료(매출의 50퍼센트)를 주고, 부가세 내고 작업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선 독자들이 돈을 내지 않지만 모바일에선 다를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식객2〉가 카카오 페이지 매출 6위입니다. 아직 초기라 성패를 말하긴 이르지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원래 마른 편인 그의 몸무게가 4킬로그램이나 줄었다.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뼈에서 국물이 빠지는 느낌입니다. 만화가 존폐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직원들 급료를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후배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 잘나간다는 인터넷 작가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잘 압니다. 내가 성공하면 후배들도 모바일에 도전하겠죠. 또 포털이 만화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식객2〉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독자와 만난다.

만화로 '떼돈을 벌지는 못해도 먹고살면서 만화를 그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했다. 허 화백은 〈식객〉보다 〈식객2〉가 더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본다.

"〈식객〉은 흑백이지만 〈식객2〉는 컬러입니다. 흑백으로 음식의 맛을 표현하기는 너무 어려웠어요. 우리가 그린 만화를 보고 우리가 입맛을 다십니다. 쏟아부은 노력과 정성이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허 화백이 그린 만화의 주인공은 여러 번 달라졌다. 얼굴도 성격도 다르다. 보통 같은 만화가가 그린 주인공은 늘 비슷한 성격과 모습을 가지고 있다. TV를 봐도 연예인들이 '캐릭터 잡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다. 한번 만든 캐릭터는 바꾸기 힘들다. 새로운 캐릭터로 과거 이상의 인기를 누리기도 힘들다. 그러나 그는 과거를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성공을 거듭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기자는 아직도 쉬는 날 가끔 만화방을 찾는다고 말했다. 과거의 영광에 연연하지 않고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열정을 가진 허 화백은 반색하며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60대의 만화가는 40대 중반의 나이에도 만화방을 찾는 오랜 독자가 반가웠나 보다. G

글·백강녕(조선일보 산업부 기자)

'봄의 마을' 은 군청과 주민의 뜻을 모아 지은 커뮤니티 공간이다. '봄의 마을' 광장에서 아이들이 활기차게 뛰놀고 있다.

공동화로 몸살 앓던 구도심 문화공간 '봄의 마을'로 변신

'봄의 마을'에 봄이 왔다. 광장엔 봄날의 생기가 가득 흐르고, 교실엔 예술의 향기가 넘친다. 군청과 주민이 손을 맞잡고 문화도시를 일궈가는 충청남도 서천의 변신을 살펴봤다. 마치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아고라처럼 도시의 모습이 변하고 주민들의 삶의 형태가 변했다. 행복하게 살아보자는 주민들의 의지가 문화를 바꿨다. 부러움을 살 만한 서천에는 계획 단계부터 뒷이야기까지 새겨들을 이야기가 많다.

충남 서천의 도심재생 '문화혁명'

그리스 수도 아테네 한가운데 우뚝 선 언덕 아크로폴리스. 그 위에 올라 남쪽 아래를 내려다보면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상징인 아고라(Agora) 유적지가 눈에 띈다.

아테네에서 아크로폴리스가 신의 영역이었다면 그 아래 아고라는 아테네 시민의 삶이 농축된 현장이었다. 시장이자 제단이었고, 법정이자 의회였으며,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었다. 평범한 아테네 시민들은 이 광장에 나와 사소한 일상을 나누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다. 2,500년 전 그들이 정한 약속과 규칙, 대화의 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의 토대가 됐고, 아고라를 바탕으로 그리스는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다.

인구 6만 명의 작은 지방 소도시에 한국판 아고라가 자리 잡고 있다.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봄의 마을' 이야기다. 봄의 마을은 서천군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한 1만576평방미터 규모의 커뮤니티 공간이다. 정부와 충청남도, 서천군이 힘을 모아 165억원의 예산을 들였고, 약 3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11년 11월 문을 열었다.

봄의 마을은 하나의 광장을 5개 건물이 둘러싼 형태다. 건물은 각각 친환경농산물 판매센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여성문화센터, 청소년문화센터, 종합교육센터로 사용된다.

가장 먼저 여성문화센터를 찾았다. 제1강의실에서 새어나오는 합창단원들의 노랫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우고, 다목적실에서는 한국무용 수업이 한창이다.

현재 여성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는 합창을 비롯해 한국화·서예·요가·밸리댄스 등 20여 개. 작은 도시에 과연 수요가 얼마나 있을까 싶지만 강좌마다 수강인원은 늘 만원이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일부 수업에 참여하려면 대기 기간이 필요할 정도로 인기다.

종합교육센터 3층에서는 플루트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비록 서툰 솜씨지만 10여 명 수강생의 표정은 전문 오케스트라 단원 못지않다.

수강생 박근창(36)씨는 "10년 전 잠깐 배우다 포기했던 플루트를 다시 접할 기회가 생겨 정말 좋다"며 "수업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악기만 있다면 누구든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플루트 수업 강사인 이슬비씨는 "지금 수강생들과 벌써 1년째 함께하고 있다"며 "단기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문화와 예술의 씨앗이 뿌리내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체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는 지역 내 일자리 수급을 조절한다. 친환경농산물 판매센터에서는 서천군에서 생산하는 각종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광장으로 나오니 학생들 무리와 만날 수 있었다. 시험 기간이라 일찍 마친 40~50명의 학생은 종합교육센터 내에 있는 독서실로 향하는 길이었다.

전통시장 이전 후 공동화로 몸살을 앓던 서천 시내는 '봄의 마을' 건립 후 주민들의 쉼터로 탈바꿈했다.

오상민 기자

종합교육센터에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한국무용 수업(왼쪽), 플루트 교실 등 20여 개의 문화 강좌가 열린다.

서천여고 2학년 김유경양은 "시내에 있어 교통편이 편리하고 독서실 내부 환경도 쾌적해 이용하는 친구들이 많다"며 "몇 년 전만 해도 못 쓰는 건물이 많아 밤에는 다니지도 못할 만큼 무서운 곳이었는데 깔끔하게 바뀌어 보기 좋다"고 말했다. 서천군은 학생들의 방과 후 학습 활동도 이곳에서 진행한다.

봄의 마을은 서천군 시내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다. 10년 전까지 전통시장이 있던 곳이다. 서천군은 2004년 도시정비 차원에서 전통시장을 인근 지역으로 옮겼다. 하지만 시장이 떠난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놓고 대립이 불거졌다.

서천군이 문화·복지 단지를 짓겠다는 안을 내놨지만 주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통보라며 반발이 이어졌다. 상권 붕괴를 걱정하는 인근 상인들의 불만도 갈수록 커졌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전통시장이 떠난 자리는 5년 이상 죽은 도심으로 방치됐다.

'2012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통령상 수상

나소열 서천군수는 "개발 논의가 시작될 때 큰 상가 건물을 지어 분양하거나 주차장을 짓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하지만 문화 공간을 만들어 주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원칙만은 바꿀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서천군은 자세부터 바꿨다. 우선 봄의 도시 조성 계획이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 '농어촌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외부 도시재생 전문가에게 연구 용역을 맡겼다. 안으로는 대화 테이블을 열어 주민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파악해나갔다. 한상일 서천군청 주무관은 "왜 문화·복지 공간이 필요한지, 이를 통해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힘은 들었지만 결국 소통의 과정은 선한 결과를 가져왔다. 서천군의 끈질긴 설득에 주민들도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고 수차례에 걸친 주민 설문조사와 현지 조사, 실무회의를 거쳐 마침내 2009년 2월 공사를 시작했다. '봄의 마을'이란 이름 역시 주민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개장 1년 반이 지난 지금 봄의 마을은 하루 평균 2,000여 주민이 문화생활을 즐기고 자유로운 상거래가 이뤄지는 공간이 됐다.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홍식씨는 "상권이 무너질까 걱정이 많았는데 봄의 마을이 들어선 후 유동인구가 많아졌고, 둘러보러 온 관광객도 늘었다"고 말했다. 나소열 군수는 "소통을 통해 만든 공간이기에 의미가 더 크다"며 "앞으로 문화와 예술 등 무형의 자원이 채움과 비움을 반복하는 참된 의미의 광장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서천군은 최근 겹경사를 맞았다. 지난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문화의 달' 개최 도시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통령상을 받았다. 광장을 중심으로 각 건물에 세세히 흐르는 개방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삶터와 쉼터가 공존하는 봄의 마을, 바닷가 작은 도시 서천의 문화혁명이 주목받고 있다. G

글·장원석 기자

100년 가까운 세월을 견딘 낮은 집은 여전히 소제동 주민들의 소중한 삶터다.

이종완씨가 운영하는 대창이용원. 오래돼 색이 바랜 간판이 인상적이다.

대전 근대 아카이브즈 포럼 연구원들이 상주하는 소제관사 42호.

시간이 멈춘, 멍든 흔적들 문화의 바람이 만든 기적을…

대전 소제동 철도관사촌, 근대 문화유산 보존 움직임

'낙후'와 '옛것'은 종이 한 장 차이다. 관점을 달리하면 버릴 것은 곧 지킬 것이 된다. 지금 대전 동구 소제동에선 일제강점기 철도관사촌을 보존하고, 이와 함께 지역의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시간이 멈춘 곳'에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 그 현장을 다녀왔다.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만 해도 대전에 도청 관사가 있던 대흥동이 일등, 그다음이 선화동, 여기가 세번째로 좋은 동네였지. 철도관사들이 많았어. 철도일 하는 사람들도 졸병들은 안 살았어. 적어도 과장급, 계장급은 돼야 살았지. 그때만 해도 철도관사 주변엔 돈이 그렇게 많이 돌았지. 지금은 재개발이니 어쩌니 하지만…"

대전광역시 동구 소제동. 이종완(76)씨가 운영하는 이발소는 이 동네 사랑방이다. 대전이 광역시가 아닌 충청남도 대전시였던 시절 이용사 면허증을 땄다는 그는 부자 동네로 명성을 날리던 그 시절부터 재개발을 피할 수 없게 된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소제동을 지켜왔다. 소제동은 대전역 동광장에서 계룡공업고등학교 방향으로 좁은 도로를 따라 걸으면 나오는 곳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3,561명의 주민이 사는 조그만 동네다.

알려진 대로 대전은 철도가 키운 도시다. 경부선 부설 이후 1914년 호남선 철도까지 개통되면서 대전은 일약 근대 철도교통의 중심지가 됐다. 자연히 철도 관련 기술자들이 늘었고 대전역을 중심으로 거대한 관사촌이 형성됐다.

소제동 역시 그중 하나다. 당시에는 세 곳의 관사촌 중 하나인 '동(東)관사촌'이라 불렸다. 현재까지는 대략 40여 채의 관사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이씨가 기억하는 과거의 소제동과 많이 다르다. 도시가 확장되고 대전의 중심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빠르게 쇠락의 길을 걸었다. 사람들은 이제 소제동을 '낙후 지역' '재개발 예정지' '슬럼가' 등의 이름으로 부른다. 실제로 소제동 면적의 절반 이상은 대전시가 2009년 수립한 역세권 재정비 촉진계획에 포함됐다.

지역 주민 사진전 열고 음악회도 개최

모두 헐고 새로 짓는 뻔한 개발 시나리오만 남았으리라 생각했던 4년 전, 이곳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몇몇 이들이 근대 문화유산으로서 소제동의 가치를 보존하자고 나서면서부터다. 이들은 '대전 근대 아카이브즈 포럼(DMAF)'이란 공동 연구단을 구성해 행동에 나섰다. 대전시와 목원대가 공동 추진하는 '대전 근대사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사업'의 일환이다. 이 사업은 참신함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지역문화컨설팅사업에도 선정됐다. 소제동의 문화적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지역의 공동체 문화를 복원해보자는 일종의 실험이다.

포럼의 일원인 유현민 연구원은 "소제동은 철도 시대 대전의 옛 모습을 간직한 소중한 문화자원"이라며 "그 속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는 그 자체로 비싼 역사"라고 말했다.

소제동 골목길을 따라 걸으면 시대의 아픔과 세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위) 일제강점기 세워진 나무 전봇대.

둘러보니 그의 말대로 소제동 곳곳에는 이야깃거리가 넘친다. '시간이 멈춘 곳'이란 표현이 가장 적확할까? 요즘도 이런 동네가 있나 싶을 정도로 협소한 골목과 색 바랜 간판, 사람 키 높이의 담장과 그 위로 빼꼼히 고개를 내민 열매 없는 감나무. 이젠 못 보고 자란 세대가 더 많아졌을 낡은 슬레이트 지붕과 100년 된 나무 전봇대까지 동네 전체가 문화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 연구원은 "소제동은 사람과 시간의 때가 고스란히 살아 숨 쉬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DMAF는 소제동 안에 '소제관사 42호'라는 이름의 베이스캠프를 만들었다. 일제강점기에 개별 관사촌이 'ㅇㅇ호'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던 것을 응용했다. 실제로 소제동에는 지금도 51호, 55호 등 숫자가 적힌 일부 관사가 남아 있다.

이들이 소제동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작업은 역사를 복원하는 일이었다. 유 연구원은 철도관사 42호 안에 소제사진관을 열고 184일 동안 지역 주민들을 만나 그들의 삶을 글과 사진으로 엮었다. 다양한 세대의 주민들과 소통하며 관사촌의 형성 과정부터 도시의 성쇠에 얽힌 스토리를 되살리는 작업이었다. 경로당에서 만난 강영규(85) 할아버지부터, 43년째 한자리에서 약국을 지킨 장병길(75)씨와 1979년부터 슈퍼를 운영하는 윤광원(64)·김명옥(56)씨 부부 등 100명이 넘는 주민들을 취재했다.

이 과정에서 30~40년 동안 소제동을 지키며 살아온 원주민도 몰랐던 이야기가 쏟아졌고 누군가는 잊었던 '과거' 역시 타인의 기억으로 되살아났다. DMAF는 이 자료를 모아 사진전을 열었다.

뜻을 같이하는 작가들도 모였다. 지금 소제관사 42호에는 두 명의 작가가 상주하고 있다. 회화작가 노상희씨와 거리예술가 원정연 작가다. 원 작가는 "조만간 소제동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래피티(graffiti)로 표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젊은 음악인들을 모아 소규모로 개최한 '골목길 음악회' 역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역사와 예술이 만나자 소제동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처음에 경계하던 주민들도 좋은 취지를 이해하고 호감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어르신의 영정사진을 무료로 촬영해주거나 아이들과 함께 골목길 그림 그리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덕분이다.

DMAF의 노력과 함께 소제동의 운치 있는 옛 모습이 일부 작가들에 의해 알려지면서 최근 이곳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한 단편영화의 촬영지로도 활용됐다. 이제는 일반 관광객도 제법 늘었다. 고윤수 대전시 학예연구사는 "어떤 이들은 이 관사촌을 '적산가옥(敵産家屋·일본이 패망 후 철수하며 남긴 집이나 건물)'이라 부르지만 그럼에도 이곳은 문화재"라며 "장소성과 역사성을 살릴 수 있는 개발 방식을 주민들과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낙후'와 '옛것'은 종이 한 장 차이다. 관점을 바꾸면 버릴 것은 곧 지킬 것이 된다. '지금'은 '옛날'에서 꽃피고, 아픔 또한 역사다. 대전 소제동에서 그 현장을 만날 수 있다. G

글·장원석 기자 / 사진·오상민 기자

한옥마을 이미지化에 성공 관광도시로 다시 태어났다

문화 입힌 매력적인 도시재생 성공사례

세계와 소통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 전주의 중심에는 한옥마을이 있다.
전주한옥마을은 원도심의 전통마을을 지역발전 모델로 개발한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례로 꼽힌다.
'쇼케이스형' 한옥마을이 아니라 주민이 거주하는 관광지로서의 전주한옥마을 덕분에
지난해 2012년 전주를 찾은 방문객이 700만 명을 돌파했다.
하루 평균 2만 명이 찾는다는 전주를 가보았다.

전주 한옥마을 골목에서 만난 개구쟁이들. 사진을 찍는다니 제법 진중한 포즈를 취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 박병수씨가 방문객들 사진을 찍어주고 있다.

한때 우리의 미용실들은 다 이러했다. 한옥마을 미용실.

고놈들 참. 올망졸망한 아이들 셋이 손에 든 신발주머니를 달랑달랑 흔들며 골목을 다니는 모습에 지나는 이웃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4월의 마지막 날, 전주한옥마을 남쪽을 흐르는 전주천을 가로지른 남천교에서 한옥마을로 들어가는 길이었다. 곳곳에 봄꽃이 만발한 한옥 골목을 음미하면서 고택 학인당(전주에서 가장 오래된 한옥·1908년 건립)을 지나 마주친 골목 안 풍경이다.

아이들은 인근 초등학교에 다닌다고 했다. 학원 마치고 또 다른 학원에 가는 길이라나. 대한민국 어린이들은 어디에서나 바쁜 모양이다. 통통한 볼살, 윤기 흐르는 가무잡잡한 피부가 햇빛 많이 받고 자란 건강한 모습들이었다. 몇 학년인지 물었다.

"얘는 1학년이래요."

"그래? 그럼 너는 2학년?"

"얘도 1학년이래요!"

애고, 이러다 싸울라. 셋 모두 1학년생이었다. 사진 '한방' 찍자는 말에 잠시 포즈를 취하고는 다시 함께 학원 방향으로 달려갔다. 전주한옥마을 덕분에 지난해 전주를 찾은 관광객이 700만 명을 돌파하고 평일에도 2만 명이 전주를 찾는다지만 한옥마을 골목골목에는 이렇게 정겨운 모습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전주한옥마을. 조선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봉안한 경기전(사적 제339호) 주변의 교동과 풍남동 일대에 1930년대부터 형성된 한옥군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 도시재생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인근의 전동성당, 교회당 등과 어울려 기묘한 매력이 있다.

전주시가 '세계와 소통하는 가장 한국적인 한옥마을'이란 비전을 갖고 추진해온 '전통문화도시' 사업은 이곳 한옥마을을 중심축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한옥마을 안에 부채·소리·완판본의 3대 문화관이 2011년 문을 열었다. 전통 생활양식의 근간인 한옥·한식·한지·한국소리(판소리) 등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를 담고 있는 '한스타일'의 거점도시로서 전주의 기능은 한옥마을에서 멀지 않은 완산구 현무1길에 한지산업지원센터가 2010년 문을 열며 한층 강화됐다.

전통문화 담은 '한스타일' 거점도시

하지만 전주한옥마을의 매력은 이러한 사업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한옥마을 안에는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고택들, 크고 작은 박물관과 체험관, 감각적인 카페와 갤러리, 맛집들이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움을 보여준다. 그리고 관광객 일색의 거리 풍경이 아닌, 한옥마을 사람들이 느긋한 일상을 보내는 모습에서 바쁜 현대생활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의 원형을 다시 마주하는 기분이란.

"와서 보니 또 볼 게 있네, 뒷골목도 있네, 이러면서 한옥마을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700만으로 추정되는 관광객은 불과 몇 년 전에는 생각도 없었어요."

송하진 전주시장이다. 송 시장은 이날 전주향교와 이웃한 전통문화관 경업당에서 열린 2013 문화도시·문화마을 포럼에 참석해 전주한옥마을을 '문화도시'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한옥마을에 들어서기 전 들른 포럼에서 들은 송 시장의 말은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1 한옥마을 바로 옆 전동성당.
2 추억 찾기를 원하면 한옥마을로.
3 살랑대는 봄, 나들이 나온 여성 관광객들.
4 한옥마을 가게에서 직접 만드는 꽈배기 과자.
5 오래된 한옥 처마 밑 풍경.
6 영화의 거리 끝에서 행사 시작을 외치다! 전주국제영화제 'JIFF지기들'.

“국제슬로시티 등 각종 타이틀들을 딸 수 없을 만큼 따내다 보니 우리 스스로 어떤 도시로 불러야 할지 정체성에 혼란이 올 정도입니다.”

포럼 내용도 내용이지만, 무엇보다 신발 벗고 마룻바닥으로 들어가니 천장의 용마루와 서까래가 보이는 경업당은 ‘역시 전주다’ 싶었다.

“전통과 관광의 조화 이룰 지혜 필요” 지적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려가는 ‘초딩’들과 헤어져 계속 한옥마을 골목 탐험을 하다 우물 있는 마당에 눈길이 꽂혔다. 옛날 방식으로 땅을 파고 둥근 돌을 켜켜이 쌓아 만든 우물의 깊이는 15미터 가량. 안을 들여다보니 바닥 아래 반짝이는 물 표면이 보인다. 우물 옆에 놓인 황동색 두레박, 붉은 모란이 활짝 피었다. 일주일 전 문을 열었다는 모란갤러리 게스트하우스다.

“100년은 된 모란이에요. 모란은 5월이 가장 예뻐요.”

이곳 주인 박명수(56)씨는 1940년대 조부가 지은 집을 리모델링해 게스트하우스를 열었다. 330평방미터의 대지 위에 본채와 별채로 이루어져 있다. 본채와 마주보고 있는 황토색 담장도 유서 깊다.

“저 담장이 원래 학인당 담장이에요. 학인당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어 지금 규모가 됐지만 우리 집과 경계했던 담장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돌우물과 140년 된 감나무, 100년 된 모란과 학인당 담장은 한옥마을이 아니라 흔한 도시 재개발이 이루어졌다면 어떠한 운명을 걷게 됐을까.

물론 이곳 주민 입장에서는 미흡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다. 건축업을 했다는 이곳 주인장은 외국여행 경험도 많았다.

“지나치게 전통만 고집하다 보니 저녁 8,9시만 넘어도 거리가 썰렁해요. 우리가 외국여행 가서도 숙소에 들어가 샤워하고 간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 맛있는 음식도 먹거나 간단한 음주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는데, 9시만 넘으면 다들 문을 닫아버려요. 전통 한옥마을과 관광지로서의 특성이 50 대 50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바베큐 시설이 되어 있는 게스트하우스 뒷마당까지 골고루 구경하고 한옥마을 내 태조로와 은행로 교차 사거리의 파전집에서 김치전을 주문했다.

“손님이 하나도 없네. 오후 5신데 김치전 하나로 개시했어!”

자신의 남편이 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신은 엎드리면 코 닿을 곳에서 시집왔다는 여주인은 지나는 관광객들이 많지만 실제 매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여주인은 자신이 TV방송에 ‘벌떡주’와 파전 뒤집기 재주로 등장한 적이 있다며 은근히 자랑도 했다. 몸에 좋은 약재를 넣어 직접 담근 모주가 ‘벌떡주’란다. 요즘은 다른 가게들이 공장에서 생산된 모주를 판매해 지난 가을 이후 안 만든다고 했다.

“지금은 꼬마치들 세상이잖아. 외국인 관광객? 여그 와야 잘 안 먹어. 중국 애들은 뭐 살라면 100원, 200원 내놔. 서울 가서는 화장품 500만원씩도 산다드만.”

외국인 관광객들은 전주가 지방이니 서울보다 쌀 것으로 생각한 모양이다.

경기전으로 가는 길 중간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담벼락에 ‘전주에 반해버린 영화’란 제목으로 사진전이 열리고 있었다. 〈늑대소년〉 〈신세계〉 〈반창꼬〉 〈평양성〉 등 최근 제작된 영화들이 전주종합영화촬영소를 비롯해 전주 곳곳에서 촬영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최근 3년간 전주권역에서 촬영한 영화가 152편에 달한다고 한다.

사진전은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열린 제14회 전주국제영화제(JIFF)의 부대행사 중 하나였다.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동안에는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는 메인스트리트인 영화의 거리와 한옥마을을 잇는 셔틀버스가 운행됐다. 걸어가도 30분 이내 거리다.

최근 3년간 전주권역서 촬영한 영화만 152편

CGV전주, 전주시네마타운, 메가박스 전주 등 영화관이 밀집한 영화의 거리에 도착하니 달달한 쥐포 구운 냄새가 영화관이 인근임을 짐작케 한다. 갑자기 영화의 거리가 시끌벅적해진다. 노란 점퍼를 입은 ‘JIFF지기’들이 손에 피켓을 들고 이날 오후 7시 JIFF스페이스에서 열리는 공연을 알리고 있었다.

“처음 한 건데 정말 재미있어요.” 전주국제영화제 자원봉사자 이윤길씨(군산대 기계자동차학과 2학년)다. 이수연씨(전북대 스페인중남미학과 3학년 휴학 중)는 “우리 팀은 머리가 아니라 힘을 쓰는 팀”이라며 “정말 힘든 일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결속력이 좋아지고 가족같이 일할 수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래도 유명배우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특권이 있지 않을까?

“에이, 우리는 ‘연예인 보기를 돌같이 하라’예요. 안 그럼 옷을 벗어야죠.”

전주대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한다는 한경미씨는 “무엇보다 고향 전주에서 영화제를 한다는 자체가 좋다”고 했다.

해가 저물며 영화의 거리는 늘어나는 사람들로 더욱 활기를 띠었다. 영화의 거리에 자리한 JIFF라운지 무대에 조명이 켜졌다. 무대의 밴드가 연주하는 재즈음악이 밤공기를 뚫고 멀리 퍼진다. 삼삼오오 모여든 커플들, 쌀쌀한 밤공기가 서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지 모른다.

더 앉아 있고 싶은 마음을 접고 영화의 거리를 빠져나갔다. 영화의 거리 끝에 자리한 라면집, 뜨끈한 라면이 반가운 날씨 덕분인가. 외국에서 온 영화제 참석자들도 영어로 ‘라면대담’ 중이었다.

한옥마을을 기점으로 시작된 하루살이 전주기행은 정겨운 남부시장·막걸리거리·덕진공원 등 많은 전주의 명소에 이르지 못하고 끝났다. 하지만 도시가 문화의 옷을 입었을 때 얼마나 매력적으로 변신할 수 있는지. 다리에는 피로, 가슴에는 여운이 남는다. G

글과 사진·박경아 기자

뉴욕 타임스퀘어 비빔밥 광고에 증강현실 넣으면 어떨까?

딱딱한 기술에 예술과 문화를 더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있다.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협업을 하는 벤처회사 서커스컴퍼니의 이야기다. 서커스컴퍼니가 만들어내는 증강현실은 평범한 문화콘텐츠에 생명을 불어넣으며 소비자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서커스컴퍼니 사무실 한쪽 벽에는 증강현실 시안이 빼곡하게 붙어 있다.

서커스컴퍼니 박선욱 대표는 "한류 콘텐츠와 증강현실이 만나면 세계 팬들을 열광시킬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증강현실 기술 접목한 서커스컴퍼니

지난해 11월 출시된 '2013 장근석 달력'은 특별하다. 겉보기엔 배우 장근석씨의 화보가 들어간 여느 스타 달력과 다름이 없다. 하지만 스마트기기에서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킨 뒤 달력에 비추면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달력 위에 장씨의 동영상이 재생되면서 눈앞에서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한 주인공은 벤처기업 서커스컴퍼니의 박선욱 대표(36)다. 증강현실 서비스를 적용해 일반 달력과 차별화된 '증강현실 달력'을 만들어냈다. 증강현실(AR·Augmented Reality)은 실제 공간에 가상의 이미지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이다. 지난해에 2만원대에 팔렸던 장근석 달력은 증강현실 기술을 등에 업고 2013년 달력부터 3~4만원 대에 팔리고 있다. 증강현실이 고부가가치 상품을 낳은 것이다.

박 대표가 증강현실에 관심을 가진 것은 지난해 4월의 일이다. 보험 세일즈와 펀드 컨설턴트로 8년간 금융권에서 일한 그는 신생 개발회사의 법인 컨설팅을 하러 찾아간 곳에서 증강현실을 처음 접했다.

"일반적으로 증강현실을 만드는 회사들이 콘텐츠에 돈을 안 쓰더라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증강현실로 구현되는 영상과 이미지, 사운드가 매력적이어야 하는데 개발자들이 정작 이 부분에 돈을 적게 쓰는 거죠. 한국에서 AR를 제대로 재밌게 하는 곳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영국, 미국, 네덜란드의 증강현실 성공 사례까지 찾아보게 됐습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일이 창업으로 이어진 거죠."

지난해 5월부터 그는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매달렸다. 7개월의 노력 끝에 같은 해 11월 증강현실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서커스AR'를 출시했다.

그는 '단순함과 재미'를 중시한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작업만으로 누구든지 증강현실을 접하되, 눈앞에 펼쳐지는 가상 이미지는 누구에게나 재밌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커스컴퍼니가 지금까지 서비스한 증강현실은 약 600여 개. 평창스페셜동계올림픽 증강현실 기념엽서부터 화천 산천어축제 증강현실 명화 전시회 등 분야와 대상도 다양하다.

"증강현실이 보편화되려면 무엇보다 쉽고 재미있어야 한다고 봐요. 증강현실이 개념적으로는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대상에 증강현실을 접목시키려 했어요."

가장 일상적인 대상은 지폐였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갖고 있는 지폐에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해 누구든지 일상에서 증강현실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는 본인의 스마트폰을 꺼내 직접 서커스AR를 시연해 보였다. 서커스AR 앱을 실행시킨 뒤 1천원권을 비추자 지폐 위로 귀여운 그림의 캐릭터가 등장하면서 노래가 흘러나왔다. 5천원권, 1만원, 5만원권 지폐마다 색다른 증강현실 서비스를 적용했다.

"더 많은 세계인에게 '역동적 한국' 알릴 수 있어요"

박 대표는 음악가나 만화가 등 예술가와의 협업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관심이 많다. 웹툰 작가와 인디밴드의 협업으로 웹툰 콘텐츠가 담긴 엽서를 만들고 인디밴드 콘서트 CD 커버 이미지에 증강현실을 서비스했다.

증강현실과 한류를 접목하는 데도 열심이다. 다양한 한류 콘텐츠에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하면 더 많은 세계인들에게 '역동적인 한국'을 알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장근석 달력과 같이 고부가가치 상품을 여럿 만들어내는 일도 가능하다.

"연예·의류·음식 등 각종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한류가 주목받고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뮤직비디오로 월드스타가 된 싸이처럼 앞으로는 한류를 전파하는 수단이 무엇이 될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각종 한류 콘텐츠를 비출 때마다 재미있는 증강현실이 구현된다면 기술로 한류를 이끌 수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도 여러 개다. 뉴욕 타임스퀘어 비빔밥 광고에 증강현실을 적용해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비빔밥 만드는 법을 알리거나 관광지도에 길 찾는 법과 맛집, 관광명소가 증강현실로 떠오르게 하는 것이다.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세계인들을 위한 증강현실 구현도 가능하다. 한글 교재 위에 증강현실이 구현되면 책으로 학습하는 도중에 강의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한글 발음을 듣는 것이 가능해진다.

박 대표는 "문화융성의 시대를 맞아 정부 주도하에 증강현실을 적용한 한글 교재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국내 엔터테인먼트 3대 기획사의 한류스타들을 합친 증강현실 스타 화보집을 만들면 그 수익이 어마어마하리라 본다"며 "한류를 더 생생하게 알리는 방법으로 증강현실이 무궁무진하게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증강현실이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지속성'에서 찾고 있다. 같은 대상일지라도 지속적으로 색다른 내용의 증강현실을 업데이트한다면 소비자의 호기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처럼 사람들을 열광시키고 화제를 모으는 증강현실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소비자들이 증강현실을 눌러보고 싶게끔 만드는 킬링 콘텐츠를 찾고 말 겁니다." G

글·김슬기 기자 / 사진·지미연 기자

창작을 업으로 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생계걱정 없이 재능·열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한 대학생이 벽에 얼룩말을 그려넣고 있다.

문화예술인 최소 생계보장 끼와 열정 펼칠 환경 만든다

21세기는 국민 개개인의 상상력이 콘텐츠가 되고 이것이 곧 경제 성장을 이끄는 시대다.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나온 창작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문화융성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 정부가 문화예술인들의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저작자 권익 강화로 문화융성시대 실현

'문화융성'의 토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과 창의력이다. 그 토대 위에 산업이 더해져 융합하면 다양한 콘텐츠가 탄생한다. 이를 사업화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문화융성을 통한 국민행복 시대는 이러한 과정 끝에 펼쳐진다. 창작을 업으로 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최소한 생계 걱정 없이 재능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월 14일 발표한 '2012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관련 월수입 평균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조사에 응한 문화예술인 2,000명 중 개인의 창작활동 관련 월수입이 '없다'고 답한 이도 524명(26.2퍼센트)이나 됐다.

현재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가 154만6,000원, 1인 기준 최저생계비가 57만2,000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문화예술인들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4대 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중 산재보험·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율도 각각 27.9퍼센트, 30.5퍼센트밖에 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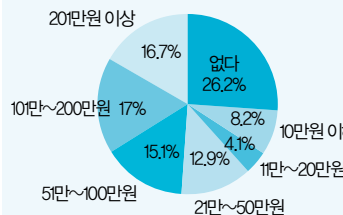
문화예술인들의 복지안전망 구축과 창작 지원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연극·무용·오페라 등 공연예술 분야의 대표 작품 육성을 위한 창작팩토리 사업을 지난해 43개 작품에서 올해 75개 작품으로 확대했다.

우선 독립영화 전문관을 늘리고 독립영화 제작을 돕는 전문 펀드를 조성해 영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인디밴드와 뮤지션을 발굴해 음반녹음과 홍보를 돕는 방안도 준비했다.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연 4만2,000원(최저임금 기준 보험료의 30퍼센트)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해 훈련 수당으로 2~3개월 동안 월 20만원씩, 창작 준비금으로 5~6개월간 월 45만~60만원씩 지급한다.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한 법률도 제정해 문화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정부는 상상력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콘텐츠산업 육성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2014년부터 7,000억원 이상의 상상콘텐츠 기금을 조성해 게임·음악·애니메이션·영화·뮤지컬 등 5대 콘텐츠를 집중 육성한다.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기까지 멘토링·펀딩·네트워킹·마케팅 등 사업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콘텐츠코리아랩도 설립한다.

창작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저작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스트리밍(음악감상)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 사용료 징수방식(무제한 정액제)을 이용 횟수당 징수 방식(종량제)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음원사이트 업체는 1회 듣기나 월정액 듣기 등 음악사이트가 제공하는 상품 유형에 관계없이 월별로 실제 스트리밍 이용 횟수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권리3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 내야 한다.

소비자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노래를 한 번 들을 때마다 저작권 사용료는 3.6원씩이다. 그만큼 저작권자의 권리가 향상된 것이다. 저작권보호센터를 '저작권보호원'으로 확대·개편해 불법저작물 단속 체계를 일원화한다.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설립해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이를 통해 현재 2명인 전문 인력을 2017년까지 1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디지털포렌식은 저작권 침해 증거자료가 법적 증거력을 갖도록 절차에 따라 수집·분석·보고하는 과학수사 기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불법저작물에 대한 단속도 상시·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저작권 경찰은 불법저작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2008년 9월 출범한 조직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41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저작권 경찰은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을 갖고 서울·부산·광주·대전 등 4개 지역사무소를 거점으로 단속활동을 한다.

저작권보호센터, SW부정복제물신고센터 등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전국에 걸친 상시 수사 활동도 진행한다. 또 불법저작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불법저작물을 영리·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헤비 업로더(온라인을 통해 영리적 목적으로 불법저작물을 전송해 이득을 챙기는 사람)에 대한 추적, 불법저작물 유통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등 강력한 저작권보호정책도 펼치고 있다.

저작권 경찰은 올 연말까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기업에 대한 단속·수사를 전개한다. 또 2,400여 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경찰의 '찾아가는 SW 지킴이' 활동도 펼친다. 기업이 자발적인 관리 노력을 통해 SW 불법복제를 지양하고 정품 SW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글·박기태 기자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는 창조경제의 핵심축 상상력·창의력으로 경쟁해야"

중앙포토

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은 창조경제의 출발점이다. 과학에 이야기를 입혀 '과학쇼'를 선보이는 대학생 교육기부단 'steam 이야기꾼' 단원들이 4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3 가족과학축제' 참가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연소실험을 선보이고 있다.

아침에 출근하면 항상 보는 세 가지 글귀가 있다. 첫번째는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 두번째는 '다르게 생각하라(Think Different)', 세번째는 '역지사지(易地思之)'다.

이 중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은 글귀만 읽어도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함을 느끼게 된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경제적·시간적·심적으로 여유가 생겨 문화생활을 마음껏 즐기는 모습이 상상되기 때문이다. 또 대한민국 5천 년 역사의 유·무형 문화유산, 문화예술, 콘텐츠산업이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문화융성 대한민국'을 상상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 정부의 국정기조 중 하나로 제시된 '문화융성'은 문화가 기운차게 일어나 번성한 대한민국을 꿈꾸게 한다. 그러나 문화융성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문화란 '자연상태의 어떤 것에 인위적인 작용을 가하여 그것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융성을 위해서는 그것이 문화예술이든 콘텐츠산업이든 관계없이 창작자의 지속적인 창조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창작자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창작자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창조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융성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유가 주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융성은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최고의 가치일 수도 있다.

문화융성 외에 새 정부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다. 그러나 창조경제의 개념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던 '창조'라는 용어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창조경제의 개념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각 부처는 각자의 입장에서 창조경제를 설명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일부 언론에서 "창조경제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창의적 아이디어 바탕으로 독창적인 상품·서비스 개발

그러나 각 부처에서 말하는 창조경제의 개념이 틀린 것은 아니다. 다 맞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모호하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창조경제의 개념을 총체적이 아니라 부분부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창조경제의 개념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의 개념을 간략화해 보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상품화·창업·융합)해 새로운 부(富)와 일자리를 창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경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창조경제의 핵심축은 무엇일까? 창조경제의 핵심축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창조경제의 핵심축은 바로 문화(Culture)와 기술(Technology), 즉 'C'와 'T'다.

여기서 문화는 5천 년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문화예술, 콘텐츠산업을 포괄하는 것이며, 기술은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이 핵심이다. 따라서 창조경제란 '문화(C)와 기술(T)'을 근간으로 기존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창조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부(富)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창조경제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한다면 창조경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문화(C)와 기술(T)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시키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창조경제의 핵심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전된 문화와 기술을 토대로 문화와 과학기술, 문화와 산업, 산업과 산업의 융합을 통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창조상품과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제반환경을 구축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에서 핵심이 되는 산업을 하나 고르라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5천 년 유·무형의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상상력과 첨단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를 제고할 뿐 아니라 부가가치와 일자리도 창출하는 '콘텐츠산업'이다.

사실 'Creative Economy'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영국의 전략가 존 호킨스도 그렇고 'Creative Economy Report 2010'을 작성했던 유엔에서도 문화예술과 함께 콘텐츠산업을 창조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산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디지털과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ICT산업은 인프라로서의 의미와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다르게 생각하기, 역지사지 정신 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근 창조경제에 대한 논의에서 너무 ICT 부분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문화예술과 콘텐츠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문화와 기술을 핵심축으로 하는 '창조경제'와 별도로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기조를 발표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문화융성'의 측면에서도, '창조경제' 측면에서도 콘텐츠산업은 과학기술과 함께 새 정부의 핵심 전략산업으로써 육성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다.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이 두 가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는 세계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이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적 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성패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는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꿔본다.

글·김진규(한국콘텐츠진흥원 CT개발본부장)

한국조정 사상 처음으로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딴 지유진(왼쪽)·이학범 선수.

한국조정 8월의 남녀! 이학범·지유진

3월 세계대회서 첫 메달… 충주선수권대회 청신호

우리나라가 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메달을 획득할 수 있을까? 3월 24일 호주에서 열린 삼성월드로잉컵 대회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지유진(25·화천군청) 선수와 이학범(20·수원시청) 선수의 활약이 기대된다. 지유진·이학범 선수는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서 파이널A에 반드시 오르겠다는 각오다.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충주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오는 8월 25일부터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열린다.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선수와 동호인들이 힘차게 물살을 헤치며 노를 젓고 있다.

충북 충주는 한반도의 중심 고을로 남한강과 달천이 흐르는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물의 고장이다. 이런 충주에서 올 여름 화려한 물살의 향연이 펼쳐진다. 충북 충주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열린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조정 종주국인 영국을 비롯한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로 중계돼 30억 명 이상이 시청하는 최고의 국제 수상스포츠 행사다. '세계를 향한 꿈과 도전(Rowing the World)'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번 대회를 계기로 충주는 세계적인 수상레저 관광휴양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한국에서 조정이란 수상스포츠는 아직 불모지나 다름없다. 아시아권에서 중국·일본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지만 영국 등 유럽과는 현격한 수준 차이를 드러낸다. 2012 런던올림픽에서 남녀 싱글스컬, 여자 경량급 더블스컬 등 3종목에 출전했지만 모두 예선 탈락했다. 세계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이런 가운데 3월 24일 단비 같은 소식이 들렸다. 호주에서 열린 삼성월드로잉컵 대회에서 지유진 선수가 여자부 경량급 싱글스컬에서 은메달을, 이학범 선수가 남자부 경량급 싱글스컬에서 동메달을 따낸 것이다. 한국조정은 그동안 국제대회 결승에 오른 적은 있지만 메달을 목에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척박한 조정 현실에서 얻어낸 값진 메달이다.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서의 가능성을 열어젖히기에 충분했다.

지 선수는 "호주에서 메달 입상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유럽이나 오세아니아 조정 강국 선수들을 직접 보니 해볼 만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호주서 얻은 가장 값진 수확은 자신감이다"고 말했다.

지유진·이학범 선수는 충주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조정 사상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는 각오다. 세계선수권에서 한 번도 진출한 적이 없는 파이널A에 반드시 오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대한민국 조정의 자존심을 걸고 사력을 다할 생각이다.

지 선수는 중학교 때 체육교사의 권유로 노를 잡았다. 이후 고등학교 3학년 때 2006 도하아시안게임에 출전하면서 태극마크를 달았다. 지금까지 7년째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다.

지 선수가 세운 충주세계선수권대회 목표는 파이널A. 세계선수권에서 한국 선수들이 한 번도 진출하지 못한 마의 벽이다. 7분 50초 반의 기록으로 통과하는 것이 구체적인 목표다.

"유럽 강국 선수들과 해볼 만하다" 자신감 얻어

이학범 선수는 중학교 때 친구 따라 조정을 시작했다가 국가대표 에이스 자리까지 꿰찼다. 고등학교 시절 처음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이후 가장 촉망받는 대표 선수로 뛰고 있다. 이 선수 역시 충주세계선수권에서 파이널A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다.

이 선수는 "경량급의 경우 체중 감량이 매우 중요하다. 조정은 지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체중과 근력을 유지해야 한다. 운동은 말할 것도 없고 식단 조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지 선수도 먹는 것을 보면 무게와 칼로리를 단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음식에 민감하다. 한국조정이 아시아 선수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량급(여자 59킬로그램 이하·여자 경량 커드러플스컬)을 전략 종목으로 선정해 선수들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영향이다.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서 한국조정 대표팀 지휘봉은 장현철 감독이 맡는다. 장 감독은 호주 전지훈련 때 확보한 코칭스태프와 훈련 스케줄 등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선수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선수들 역시 장 감독의 훈련 프로그램에 크게 만족하며 대회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글·박기태 기자

김정선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준비 척척…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충주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처럼 큰 국제대회를 한 번도 치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계기로 충주가 세계적인 수상레저 문화관광 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선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의 각오가 남다르다.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대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직위 직원들을 현장 지휘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대회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준비 상황은?

"지난해 12월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이 완공돼 하드웨어 부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남은 과제는 소프트웨어, 즉 어떻게 대회를 운영할 것인가입니다. 선수들을 위한 숙식과 교통 등에 대한 대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회 전후 12일 동안 하루에 100여 대의 대형버스를 투입할 예정이고 선수단이 머무를 객실 1,979개도 이미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은?

"조직위의 힘만으로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힘듭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대 필요합니다. 대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내 조정경기나 길거리 조정경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탄금호 조정경기장에 마련된 조정체험장도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국내외 유명 인사들을 초청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유명 개그맨인 컬투도 홍보대사로 나서 국민들에게 조정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생산유발 1,150억원, 고용유발 1,440명 등 경제적 효과는 물론 충주와 대한민국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국민적 자긍심과 일체감, 연대감도 높아질 것입니다. 북충주 IC와 경기장, 그리고 경기장과 칠금동 간 12킬로미터 구간 도로 등이 완공되고 동서고속도로와 충청고속도로, 중부내륙선철도 등의 개선사업이 적극 추진되면 충주는 중부내륙 지역의 교통요지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두번째 열리는 대회로 남자 13개, 여자 9개, 장애인 5개 등 총 27개 종목에 80개국 2,3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011년 슬로베니아 대회에는 68개 국가가 참여했다. 반면 충주는 이처럼 큰 규모의 국제행사를 치러본 적이 없어 그만큼 부담감이 큽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있다면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열정과 에너지는 세계 최고라 자부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량을 다시 한번 과시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대 압박하는 치명적 퍼팅 박인비는 '조용한 암살자'

세계랭킹 1위 박인비가 4월 29일 미국 텍사스주 어빙의 라스 콜리나스 골프장에서 열린 노스텍사스 LPGA 슛아웃 최종 라운드에서 어프로치 샷을 하고 있다. 그는 시즌 3승을 역전 우승으로 장식하며 골프 퀸의 면모를 뽐냈다.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등극 올해 LPGA 7개 대회서 3번 우승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에 오른 박인비의 기세가 무섭다. 올해 치른 LPGA 7개 대회 중 3개 대회에서 우승했다. 그는 실수가 적은 플레이어다. 화려한 드라이버는 없지만 정교한 아이언 샷과 퍼팅이 있다. 무엇보다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정신력이 있다. 미국 언론은 어느덧 그를 조용한 암살자라고 부르고 있다.

조용한 암살자(Silent Assassin).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를 질주하고 있는 박인비(25)의 별명이다. 미국 언론이 '포커페이스' 박인비의 경기 모습을 보고 붙여준 것이다. 소리 소문 없이 상대를 압박하는 모습은 마치 그림자 같다.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는 지난해 상금왕과 베어트로피(최저타수상)를 거머쥔 박인비의 폭풍 샷으로 더욱 뜨겁다.

지난 4월 30일까지 LPGA 투어는 8개 대회를 치렀다. 박인비는 이 가운데 7개 대회에 출전해 3승을 거뒀다. 2월 혼다 LPGA 타일랜드와 4월 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 그리고 노스텍사스 LPGA 슛아웃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우승 확률은 42.8퍼센트다. 파죽지세다. 세계랭킹은 물론이고 시즌 상금 순위와 올해의 선수상 등에서 모두 1위를 질주하고 있다.

세계랭킹은 올 시즌 첫 메이저대회였던 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1위에 처음 등극한 뒤로 3주째 1위다. 순위 포인트 10.12점을 획득해 2위 스테이시 루이스(미국·9.13점)와 격차를 1점 가까이 벌렸다. 4월 29일 노스텍사스 LPGA 슛아웃에서 마지막 날 역전 우승을 차지하며 점수를 더욱 끌어올렸다. 시즌 상금 누계는 84만1,068달러(약 9억4,000만 원)이고 올해의 선수상 포인트는 127점이다.

정말 무섭다. 특히 그의 퍼팅은 치명적이다.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강력한 무기다. 노스텍사스 LPGA 슛아웃의 마지막 날 경기를 봐도 그렇다. 박인비는 11언더파 단독 선두로 출발한 카를로타 시간다(23·스페인)에 2타 뒤져 있었다. 13번 홀까지 시간다는 2타를 더 줄여 14언더파였고 박인비도 추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12언더파로 따라붙었다. 어쩌면 우승이 없는 시간다에게 2타 차는 공포였을 것이다. 한순간에 뒤집힐 수 있는 타수였기 때문이다. 그랬다. 시간다는 결국 박인비에게 저격됐다. 박인비의 끈질긴 추격에 스스로 그만 무너지고 말았다.

LPGA 나비스코 챔피언십의 우승자는 18번 홀 앞에 있는 연못에 들어가야 하는 전통이 있다. 4월 7일 이 대회에서 우승한 박인비가 캐디와 함께 연못에서 승리를 축하하고 있다.

박인비는 열 살 때인 1998년 처음으로 골프채를 잡았다. 박세리가 US여자오픈에서 우승했던 해다. 박세리가 LPGA를 호령하는 모습을 보며 꿈을 키운 박인비는 중학교 1학년 때인 2001년 미국으로 건너가 본격적으로 골프를 시작했다.

2002년 US여자주니어골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며 두각을 나타낸 그는 2006년 프로로 전향해 퓨처스투어 상금 순위 3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풀시드 출전권을 확보한 지 2년 만인 2008년 US여자오픈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최나연·신지애와 동년배인 '세리 키즈'

메이저 대회에서 첫 승을 거두며 깜짝 스타로 발돋움했지만 박인비는 이후 알 수 없는 슬럼프에 시달렸다. 우승은커녕 2009년에는 컷 통과에 실패한 대회가 더 많았을 정도다. 신지애와 최나연 등 동년배 한국 선수들이 승승장구하던 때여서 상처는 더 컸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2010년부터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를 병행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린 박인비는 2012년 7월 에비앙 마스터스에서 개인 통산 두번째 우승을 기록했다. 2012년 상금왕에 오르며 화려한 2013년을 예고한 그는 올 4월 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 두번째 메이저 트로피를 차지하며 마침내 세계랭킹 1위 자리에 올랐다. 한국 선수로는 신지애에 이어 두번째다.

전문가들은 박인비의 강력한 무기로 침착함을 꼽는다. 그의 골프는 오랜 금언 중 하나인 '골프는 두번째 샷부터다'라는 얘기에 더 가깝다. 아이언 샷과 퍼팅이 좋다. 아이언 샷의 그린 적중률은 73.8퍼센트로 10위 수준이지만 평균 퍼트 수는 28.57개로 6위다. 그중에서도 그린에 공을 올려놓았을 때의 홀당 퍼트 수가 1.707로 1위다. 버디를 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뜻이다. 노스텍사스 LPGA 슛아웃 최종 라운드에서도 보기 없이 버디만 4개를 낚는 무결점 플레이 덕분에 역전 우승을 일궜다.

올해 박인비는 28라운드 동안 120개(5위)의 버디를 낚았다. 라운드당 평균 4.29개의 버디를 잡는 셈이다. 이처럼 '버디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보기가 없는 플레이가 많기 때문이다. 버디를 많이 해도 다른 홀에서 타수를 잃게 되면 큰 의미가 없다. 미국의 스테이시 루이스(28)가 올해 들어 박인비보다 무려 30개나 더 많은 150개의 버디(부문 1위)를 하고도 1승에 그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실수가 많다는 의미다.

무결점 플레이로 상대방 의지 꺾어

반면 박인비는 라운드당 언더파를 기록할 확률이 82.1퍼센트로 1위고, 60타대 스코어로 경기를 끝마칠 확률에서도 53.6퍼센트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말 '조용한 암살자'라는 표현이 딱 맞아떨어지는 골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상대 선수들이 박인비를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버디 기회의 완벽한 포착'이다. 즉, 마지막 날 우승을 다투는 상대 선수 입장에서 볼 때 거의 비슷한 퍼팅 라인에서 박인비는 넣고 자신의 퍼트는 빠지면 큰 갈등이 생긴다. 골프는 멘탈 게임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과 요소가 반복되면 시쳇말로 '멘붕(멘탈붕괴)'에 빠진다.

109주 동안 세계랭킹 1위를 지켰던 청야니(24·대만)는 "(박)인비에게는 4미터 이내에서는 무조건 오케이를 줘도 될 정도로 퍼트가 좋다"고 했다. 박인비는 "미야자토 아이(일본)보다 퍼트를 더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LPGA 투어 선수 중에 미야자토가 나보다 한수 위다"라고 겸손해했다. 그러면서 그는 "잡생각 있으면 퍼트가 잘 될 수가 없다. 코스에서 딱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머리를 비우고 경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의 퍼팅 능력의 8할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G

글·최창호(일간스포츠 기자)

귀환

젊은 음악어법으로 역공 주효… 아이돌에 빠져 있던 젊은이들도 열광

'가왕이 돌아왔다'. 조용필 19집 〈헬로(Hello)〉에 대한 반응이다. 발매 당일 2만 장이 매진되면서 〈헬로〉 신드롬을 증명했다. 10대 가수들이 열광했고 '조용필' 이름만 알던 젊은이들이 호응했다. 가수 들국화의 컴백 무대는 "행진"을 외치는 젊은 관객들로 가득했다. 뜨거운 반응을 몰고 오는 거장들의 반가운 귀환이다.

거장들의 용틀임이 한창이다. 조용필의 컴백 스매시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이건 성공 정도가 아니라 거의 센세이션 수준이다. 조용필의 기획사 와이피시(YPC) 측은 이번 10년 만의 새 앨범을 출반하기 전에 "사람들이 조용필의 신보가 나왔다는 점만이라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도 그럴 것이 2003년에 공들여 만들어 발표한 18집 앨범이 무관심 속에 묻혀버린 경험이 있어서 더욱 신중한 인상이었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 앨범 판매량이 출시 2주일 만에 10만 장을 눈앞에 뒀다는 소식이다. 스타 아이돌 그룹도 5만 장을 기록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이건 수년 만에 목격하는 오프라인 판매 광풍이다. 신곡 '바운스'와 'Hello'가 연속으로 다수의 음원차트 1위에 오르는 등 음원 스트리밍과 다운로딩도 폭발했다. 조용필 자신도 믿기지 않는 듯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냐"는 소감을 피력했다.

젊은 가수들만의 것이 된 쇼케이스를 감행한 파격, 그리고 '월드스타' 싸이의 신곡 '젠틀맨'이 펄펄 날던, 보통은 비켜가는 게 정상인 시점에 음원 '바운스'를 낸 대담한 승부수가 통했다. 기성세대들은 "정말 '가왕'다운 그 과감함에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음반의 질적 승리였다. 신보는 나이 63세에도 불구하고 팔팔한 청춘의 음악인 록과 일렉트로닉 음악을 내걸었다. 심지어 'Hello'는 청춘의 음악어법인 랩까지 동원했다. 자신과 팬들의 나이에 맞춘 어른음악이 아니라 매우 '영(Young)한' 음악으로 역공을 취한 것이다.

조용필의 이름만 아는 10대와 젊은 세대가 호응을 보인 것도 사운드가 젊어서였다. 누리꾼들은 "도대체 63세의 가수가 부른 노래가 맞나" 하며 싱싱한 조용필 보컬에 놀라워했다. 기성세대의 열광은 음악 외에 조용필을 '세대의 상징적 존재'로 여기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0대의 한 대기업 간부는 "조용필이 잘되니까 괜히 내가 잘된 것 같은 기분"이라며 흥분했다.

2030세대 '레전드' 섬기려는 새로운 움직임

돌아온 거장 중에는 조용필과 함께 1980년대 록의 전설 '들국화'가 있다. 조용필과 들국화는 같은 시대를 뛰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들국화는 '그것만이 내 세상' '행진'과 같은 노래로 1980년대 중·후반에 도발과 저항이라는 록 정신을 일깨우며 치열했던 민주화 투쟁기의 청춘을 대변했다. 들국화를 두고 '시대의 소리'라고 규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4월 4일 공연한 들국화의 무대는 1, 2집의 히트곡들을 모은 메들리 형식으로 꾸며졌다.

전인권, 최성원, 주찬권이 다시 합쳐 전성기의 라인업을 갖춘 들국화는 지난 4월 4일부터 4월 14일까지의 공연 '다시 행진'으로 기염을 토했다. 10일간 매진 행렬이 거듭되었고 관객들은 전인권이 오랫동안 갈라진 목소리를 벗고 예전처럼 높은 음을 쩌렁쩌렁 울려대며 돌아온 것에 감격해했다.

공연장은 내내 관객들의 '떼창'으로 가득했다. 객석에는 놀랍게도 젊은이들이 상당수 눈에 띄었다. 조용필 컴백 신드롬을 목격한 들국화는 음악의 퀄리티 제고에 집중, 현재 신곡 녹음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 음악계는 그간 젊은 가수들 판이었다. 나이 들어 인기차트 순위를 다툰 가수는 김수희의 '애모',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인순이의 '거위의 꿈' 등 극소수에 불과했고 실제로 젊은 층과 교감하는 아티스트도 드물었다. 전설에 대한 대우가 우리처럼 박약하고 냉혹한 나라도 없다. 가수가 전성기가 지나면 거의 예외 없이 인기 현장에서 퇴각해 추억의 무대만 기웃거리는 게 우리 가요계의 모습이었다.

솔직히 나이 서른일곱의 싸이가 중견으로 통할 만큼 어린 K-팝 전사들이 독점하는 판의 한가운데서 아버지보다 더 위인 조용필과 들국화가 앨범을 내고 공연에 박차를 가하는 광경은 반갑다. 활동 이력 25~30년의 이문세, 김현철, 봄여름가을겨울도 곧 신보를 갖고 돌아올 예정이다. 베테랑들이 콘서트는 물론 새 음반으로 귀환하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사실 10년 가까이 많은 노장들은 "음반은 내봤자…" 하며 사실상 포기의 심정으로 앨범을 내지 않았다. 조용필 신보 신드롬은 이 흐름을 바꿔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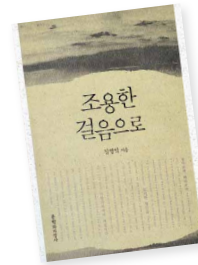
최근 10대와 20대 청년들 사이에서 계통의 필요성을 느끼는 듯 전설적 존재, 즉 레전드(Legend)를 찾아내 섬기려는 흐름이 뚜렷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른바 '레전드의 소환' 분위기다. 조용필과 들국화는 아마 그들이 불러내고 싶은 레전드 가운데 우선순위였을 것이다. 간만에 음악계가 노장 가수들의 잇단 가세로 오랜 숙원인 신구의 공존을 실천하고 있다. 이런 장면은 아이돌 댄스그룹 시대가 열린 이래 불가능해 보였음을 전제하면 말 그대로 진짜 별일이다. G

글·임진모(음악평론가)

조용필 〈헬로〉 완판 행진… 10만 장 돌파 초읽기

조용필의 새 앨범 〈헬로〉가 판매 10만 장 돌파(5월 1일 기준 9만 장)를 앞두고 있다. 〈헬로〉는 발매일인 4월 23일 2만 장이 매진됐고 4월 25일 추가 공급한 1만 장도 완판됐다. 5월 31일부터 열리는 '조용필 전국 투어-헬로' 공연에 대한 반응도 뜨겁다. 첫 공연인 5월 31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콘서트 입장권은 이미 매진됐으며 의정부와 대전·진주·대구 공연에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들국화는 KBS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100회 특집으로 선정됐다. 불후의 명곡은 선배 가수들의 노래를 후배 가수들이 부르며 경연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불후의 명곡 들국화 편'은 5월 11일, 18일 2회에 걸쳐 방송될 예정이다. 한편 들국화는 올해 새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며 발매 시기는 미정이다.

산문집 〈조용한 걸음으로〉 펴낸 문학평론가 김병익씨

“암울함과 절망감을 자산 삼아 젊은이여, 끊임없이 사유하라”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원로 인문학자가 지난 세월을 반추하는 책을 내놓았다. 한국 문학의 기둥인 문학과지성사의 상임고문이자 문학평론가인 김병익씨다. 격동의 역사를 살아낸 그가 써내려간 문장 곳곳에는 절망과 방황이 익숙해진 젊은 세대를 향한 조언과 역사와 과학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사유가 녹아 있다.

지미연 기자

반세기 문학인생을 반추하는 산문집으로 대중 앞에 선 원로 인문학자 김병익씨.

“이번 책을 내 인생의 마지막에서 두번째의 것으로 삼고 싶다. ‘마지막’이란 퍼세틱(pathetic)한 종말감과, 그럼에도 아직 한 번은 더 유예로 남겨둔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겠다는 뜻이다.”

문학평론가 김병익(75)씨가 최근에 낸 산문집 〈조용한 걸음으로〉(문학과지성사)에 실린 글이다.

일본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오에 겐자부로도 “일흔이라는 나이를 인생의 마지막 무대가 시작되는 분기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저자 역시 70대 중반이란 노년의 시간을 건너며 ‘마지막’과 ‘희망’을 언급한다. 세상에 대한 뾰족한 시각과 비판을 거둔 연륜과 관조의 여유로움 속에서 세상에 대한 재발견을 하겠다는 몸짓으로 여겨진다.

김병익씨는 “지금 내 세대에 괴로워하며 진지하게 정색하고 아프게 따지며 힘들여 셈할 일들이 얼마나 남았겠느냐”며 반문한다. 그는 “요즘 허망함을 허망함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책에 쓰인 글이 그런 연습의 하나이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50년 문학인생 돌아보며 통섭적 사유 담아

김병익씨는 우리 시대 대표적인 문학평론가이자 출판인이며 인문학자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그는 1965년부터 10년간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로 근무하며 1970년대 초 평론가 김현, 김치수 등과 함께 문학 동인지 〈문학과지성〉을 만들었다. 〈문학과지성〉은 〈창작과비평〉과 더불어 1970년대 한국문학의 두 기둥을 이뤘다. 1975년부터 문학과지성사 대표로 일하던 그는 2000년 퇴임 후 인하대학교 국어국문과 초빙교수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초대위원장을 지냈다. 현재는 문학과지성사 상임고문으로 있다. 기자 생활까지 포함하면 근 50년 가까이 한국 문단의 중심에서 살아온 셈이다.

그는 “평생을 문학비평을 업으로 삼으며 문인들의 글과 삶을 재단했지만 이제는 몸과 몸으로 부닥치는 치열함보다는 성찰·반성·후회를 통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고 술회한다.

이런 취지로 엮은 이번 책에는 기존의 두 비평집 〈기억의 습작〉(2009)과 〈이해와 공감〉(2012)을 내면서 따로 떼어놓았던 비교적 가벼운 글들이 실렸다. 저자가 문학과지성사에서 물러난 지 10년째가 되던 201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써놓은 글들이 대부분이다.

그는 “내가 문학과지성사를 물러난 10년 동안 편안했고, 한가했고 그래서 이런저런 현실적인 일들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런 덕에 역사와 현실 혹은 문학과 정신들에 대한 짐을 덜어내면서 그것들을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책의 내용은 산문집에 가깝지만 글이 넘나드는 사유의 폭은 꽤 넓다. 동료 문인이나 노년의 독서, 출판 편집, 제목 짓기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역사와 과학, 정보기술(IT)에 이르기까지 통섭적 지식인의 사유를 엿볼 수 있는 글들로 빼곡하다. 저자는 당대의 문학인들뿐만 아니라 퀴리 부인 등 과학자들도 언급하면서 인간의 경계를 허문다.

“과학자들의 세계는 객관적이고 비정하며 탈가치적이다. 그러나 과학자는 열정적이고 진지하며 때로는 바보 같고 신비적이기도 하고 드디어 비극적이기까지 하다. 그런 모습은 예술가들 못지않게 뜨겁고 아름답고 그래서 인간적이다. 과학자든 예술가든 인간의 맨 모습에는 결코 세속화할 수 없는 성자의 모습이 보인다.”

김병익씨는 격동의 한국사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그는 해방된 해에 초등학교에 들어간 한글 1세대이자 대학시절 4·19혁명을 겪었다.

또한 5·16 이후 압축 경제 성장의 열매를 맛보며 역사의 부침과 영광을 함께했다. 책 속에서 모국어 세대가 맛본 지적 풍요와 역동적 혁명의 한복판을 통과했다는 자부심을 엿볼 수 있는 이유다.

특히 그에게 4·19혁명은 10년 전의 6·25전쟁과 1950년대 전후 체제를 청산하고 반 세대 전의 광복이 채택한 민주주의의 수용을 위해 진통한 자랑스러운 역사다.

격동적인 역사의 한복판을 살아낸 그로서는 요즘 젊은이들의 절망과 방황을 바라보며 착잡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앞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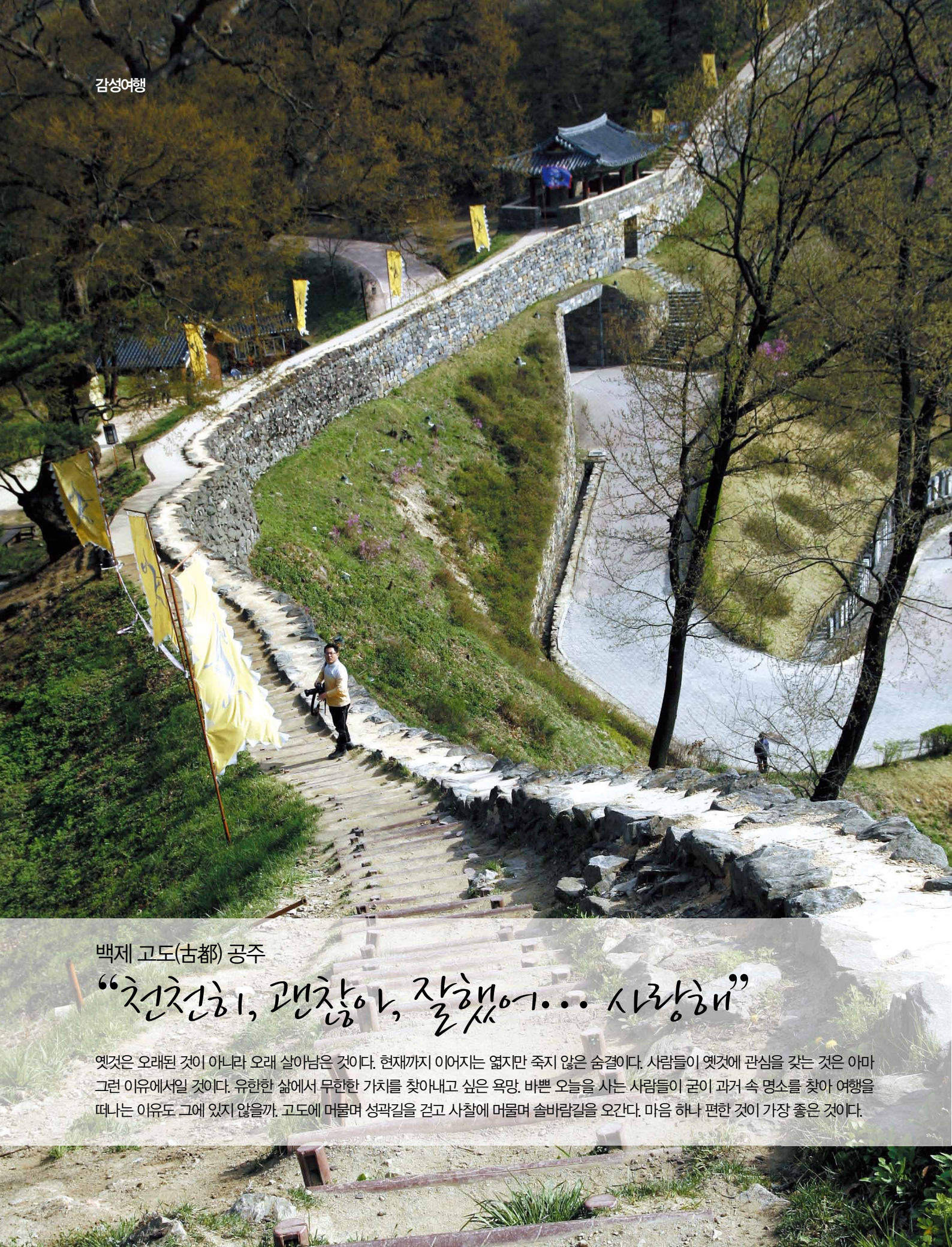
“물질적 풍요는 오히려 정신적 빈곤을 가져올 수 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그 속도를 못 좇아가는 젊은이들은 절망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 내면적 성숙이 함께 가야 하는데 현실은 그럴 여유도, 기회도 주지 않는다.”

“박경리·이청준은 도저한 삶을 살아온 대가”

그는 책에서 지금의 젊은이들이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유하라”고 외친다. 사유를 통해 지금의 암울함과 절망감을 자신의 자산으로 삼으라는 것이다.

저자 역시 끊임없이 갈등을 양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던 한국적 지형 속에서 균형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삶에 대한 끊임없는 사유’에서 비롯된 바람 덕분이라고 했다. 그 바람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가령 오늘 내가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것, 지금 인연들에 충실하자는 것,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정직하게 살아내는 일이었다고 조언했다.

백발이 성성한 김병익씨는 인터뷰 말미에 “먼저 떠나보낸 박경리·이청준 같은 당대를 풍미했던 작가들은 물질적 유혹이나 현실적 욕구에 수긍하지 않고 한평생 자신의 창작 활동만 묵묵히 해나간 ‘도저한 삶’을 살아낸 대가들”이라며 “그들의 삶에 비해 나의 삶은 한없이 부끄럽고 초라하다”고 고백하기도 한다. 책 곳곳에서 저자의 이런 인간적 사유의 면모를 쉽게 만날 수 있다. G

글·박미숙(월간중앙 기자)

백제 고도(古都) 공주
“천천히, 괜찮아, 잘했어… 사랑해”

옛것은 오래된 것이 아니라 오래 살아남은 것이다. 현재까지 이어지는 엷지만 죽지 않은 숨결이다. 사람들이 옛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마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유한한 삶에서 무한한 가치를 찾아내고 싶은 욕망. 바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굳이 과거 속 명소를 찾아 여행을 떠나는 이유도 그에 있지 않을까. 고도에 머물며 성곽길을 걷고 사찰에 머물며 솔바람길을 오간다. 마음 하나 편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공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계룡산이다. 닭볏을 쓴 용의 형상을 하고 있다 해서 계룡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산은 예부터 신령한 기운이 서려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어디서 도를 닦다 왔다는 사람의 출신은 뻑 하면 계룡산이고 계룡산 인근의 절인 갑사와 동학사, 신원사 같은 절들에도 영험한 기운이 흐른다 한다.

그런 영험한 기운 같은 것은 잘 느끼지 못하는 나처럼 평범한 사람에게 그런 장소들은 다만 사색하기 좋은 고요하고 평안한 곳으로 통한다. 걸으면서 삶의 온갖 소용돌이 속에 들떠 있던 기운이 차분히 내려앉고 더불어 산과 숲에서 오는 좋은 기운을 받는다.

공주는 무엇보다 번잡하지 않아 좋다. 관광객이 몰리지 않는다. 갈 곳 없고 볼 것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여행지로서는 다소 묻혀 있는 듯하다. 산 좋아하고 절 좋아하는 사람치고 공주 계룡산, 갑사 한 번쯤 안 찾은 사람 없겠으나 보통의 여행자, 특히 걷기 좋아하는 여행자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지역이다.

신라의 고도(古都) 경주는 사람들의 발길로 닳을 지경인데 백제의 수도였던 공주나 부여 같은 도시들은 왜 묻혀 있는 걸까. 경주 남산, 불국사가 얻는 명성에 비해 공주 계룡산과 갑사가 받는 조명은 부실하다. 물론 신라의 1300년 수도였던 서라벌 경주에 비하면 옛 웅진이었던 공주는 64년의 짧은 기간 백제의 수도였다는 점에서 경주보다는 수도로서 역사가 짧고 유물이 적은 것도 이유가 되겠다.

공산성 성곽길 걸으며 백제의 숨결을 느끼다

역사는 승자만 기억한다고 했던가. 다소 비약일 수도 있지만 과거 삼국 전쟁에서 신라의 승리가 현재 관광산업에도 그대로 재현되는 듯하다. 허나 즐겨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 사람의 발길이 뜸한 장소는 말만 떠들썩한 맛거리에서 고수의 맛집 하나를 발견했을 때처럼 신선하다. 때 묻지 않은 것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한다.

서론이 너무 길었다. 그만큼 공주의 여러 장소들은 그 무명에 비해 가볼 만한 곳이 많다. 낯선 이름의 공산성으로 발길을 옮긴다. 백제 때는 웅진성이라 불렸던 공산성은 백제 문주왕 원년인 475년에 한성에서 웅진(공주)으로 도읍을 옮긴 후 성왕 16년인 538년에 사비(부여)로 다시 도읍을 옮길 때까지 64년간 백제의 왕성이었다. 원래 토성이었던 것을 조선 인조 때 석성으로 개축했다. 말하자면 터는 백제의 성터지만 성곽 자체는 조선시대의 것이다.

마곡사 솔바람길은 거리와 난이도에 따라 1~4시간 코스로 나뉘어 있다.

공산성은 해발 110미터로 금강과 공주시내를 굽어보며 서 있다. 한 나라의 성으로서 공격에 대비한 방어와 나라살림 조망에 아주 좋은 위치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성의 길이는 2,660미터로 한 바퀴 휘돌아 걷기에도 좋은 코스다. 한 바퀴 도는 동안 문화재로 지정된 금서루·진남루·쌍수정·영동루·광복루·공북루 등 여러 누각뿐 아니라 왕궁터와 사찰, 연못 등 다양한 백제의 문화유적을 만나게 된다.

성곽 위를 아슬아슬 걷기도 하고 전망대에서 망연히 금강을 내려다보기도 한다. 궁터가 있었다는 너른 벌판을 가로질러 걸어보기도 하고 누각에 올라 마음속으로는 슬며시 호령도 해본다. 깃발 펄럭이는 성곽을 따라 걸으며 공주시내와 금강을 한눈에 내려다보니 그 풍경처럼 마음도 탁 트인다.

나를 찾아 자연에 안기는 ‘마곡사 템플스테이’

태화산 자락의 마곡사에서 하루를 머문다. 절에서 하루 묵는 것은 명상과 고요를 사랑하는 여행자의 하룻밤 호사다. 마곡사는 설법을 들으러 이 골짜기로 모여든 사람들이 마치 삼밭의 삼이 일어선 것처럼 골짜기를 가득 메웠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만큼 예부터 큰 절이었다.

마곡사 템플스테이는 꽤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휴식형과 체험형으로 나뉘어 있어 여행자의 취향을 존중한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상을 돌아보고 삶을 다시 단단히 붙들어 앉히고 싶을

공산성곽에 오르면 막혔던 숨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든다.

금강에 처음으로 놓인 금강교를 내려다보며 공주의 과거와 현대를 되돌아본다.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둘러앉아 차담(茶啖) 시간을 갖고 있다.

마곡사

때라면 휴식형이 좋겠다. 절 뒤의 솔바람길을 걷고 차 한잔 마시며 여유를 가질 수 있다. 혹은 불교가 궁금하고 절에서 행해지는 이런저런 의식을 경험해보고 싶다면 체험형을 택할 수도 있다.

산중 절 생활의 고즈넉하고 깊은 맛을 볼 수 있기는 마찬가지다. 속 시끄럽고 어지러운 말일랑 잠시 잊어도 좋다. 누군가와 함께 있더라도 눈빛과 미소만 주고받는다. 말이 필요 없는 곳, 말없이도 편안한 세계로 들어간다.

굳이 사색에 잠기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어떤 생각에 집중하려거나 부러 스트레스를 던지고 편안한 마음이 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 그저 가만히, 그대로 거기 있는 나를 느끼고 보듬는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아무 생각도 나서지 않으면 그대로 무념무상인 채로 자연에 안기면 된다.

어디든 한두 평 누울 자리만 있다면 그곳은 그저 편안한 잠자리가 된다. 눈을 감고 나면 호화로운 침상이나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일까. 육신이 잠들고 나면 내 몸 하나 이리저리 뒤척일 만한 이부자리 하나면 다른 모든 것은 아무 소용없다는 생각이 스친다.

'천천히, 괜찮아, 잘했어, 사랑해'는 마곡사 템플스테이의 모토다. 남보다 앞서가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어딜 가고 있느냐고 묻는다.

아침에는 마곡사 뒷산의 솔바람길을 걷는다. 솔바람길 걷기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도 포함되어 있다. 솔바람길은 3개 코스로 나뉘어 있는데 부담 없이 걷기는 1코스 백범명상길이 좋다. 거리는 3킬로미터 정도이고 1시간 정도 걷기에 무난하다.

김구 선생의 발길 따라 백범명상길을 걷다

마곡사에서 출발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순환코스다. 백범 선생이 일본군 장교를 살해한 후 마곡사(당시 백련암)에 은거하며 수도생활했던 것을 기리기 위해 백범명상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코스 중간에 백범 선생이 머물던 집터와 삭발터도 만날 수 있다.

초입의 경사 길만 오르고 나면 소나무 가득한 숲길은 아늑하고 포근하다. 흙 위에는 솔잎이 융단을 깔아놓았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걸음이 폭신하다. 춘마곡·추갑사라 했던가. 봄의 숲길은 진달래 잔치도 열었다. 분홍 물감을 흩뿌려놓은 듯 산길의 곳곳이 점점이 수놓은 수줍은 분홍으로 물든다.

진달래는 그 모양은 비슷하지만 진한 색으로 군락을 이루는 철쭉과는 다르게 조금 쑥스러운 듯 피어 있다. 흐드러지게 핀 꽃 잔치가 아니라 필까 말까 조금씩 세상 밖 풍경을 살피며 피어난다. 꽃길을 걸으며 하늘 한번 보고 먼 산도 한번 보고 발치도 한번 내려다본다. 이유 없이 흐뭇한 발걸음이다. 자연이 주는, 이유도 대가도 설명도 필요 없는 보약 같은 길이다.

마곡사가 보일락 말락 하고 거의 내려올 즈음이 되자 군왕이 나오는 기를 갖춘 터라는 군왕대가 너른 팔을 벌리며 기다리고 있다. 길 한쪽에 있어 자칫 놓치기 쉽다. 군왕을 태어나게 할 만큼 범상치 않은 기운을 간직하고 있다는 이곳을 놓치지 않고 들른 것만으로도 벌써 기분이 좋아진다.

정방형의 터에 들어서니 솔바람이 세게 분다. 비가 올 모양으로 산들산들 흔들리던 소나무 가지들이 더 크게 흔들린다. '쏴아악' 하고 거세게 솔바람을 내놓는다. 머리를 날리며 바람을 맞는다. 그 좋다는 터에 가만히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본다. 군왕의 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갈 길 무탈히 가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으로 그 바람을 맞는다.

"바람아~ 멈추지 말고 계속 불어다오. 더불어 내 소박한 바람에도 기를 넣어주오."

군왕대에서 하는 잠시의 풍욕으로 심신에 슬며시 바람을 불어넣는다. 그냥 바람이 아니다. 김구 선생이 맞던 그 바람, 군왕을 나오게 한다는 그 바람, 소나무가 마냥 내어주는 시원한 솔바람이다. 바람 맞는 기분이 이렇게 좋을 줄이야. G

글과 사진·이송이(여행작가)

여행수첩

마곡사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란 전통사찰에 머물며 사찰의 일상생활을 경험하고 불교의 전통문화와 수행정신을 체험해보는 머묾이다. 마곡사 템플스테이는 휴식형과 체험형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1박 2일 코스로 예불, 참선, 발우공양, 108염주 꿰기, 솔바람길 걷기, 스님과의 대화 등을 경험해볼 수 있다. 5~11월에는 매주 토요일에 마곡사 토요무대가 열린다. 국악·퓨전밴드·통기타연주·무용 등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다. 공주에서는 마곡사 외에도 갑사, 불교문화원에서 템플스테이를 경험할 수 있다.

템플스테이 체험비 : 휴식형(월~금) 3만~4만원/ 체험형(토~일) 5만~6만원

문의 ☎ 041-841-6226, www.magoksa.or.kr,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567번지

마곡사 솔바람길

1코스 : 백범명상길, 산책 코스 3킬로미터, 50분
마곡사–김구 선생 삭발터–군왕대–마곡사

2코스 : 명상산책길, 트레킹 코스 5킬로미터, 1시간 30분
마곡사–천연송림욕장–은적암–백련암–활인봉–생골마을(약초마을)–마곡사

3코스 : 송림숲길, 등산 코스 11킬로미터, 3시간 30분
마곡사–천연송림욕장–은적암–백련암–아들바위(솔잎융단길)–나발봉(황토숲길)–전통불교문화원–다비식장–장군샘–군왕대–마곡사

찾아가는 길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천안분기점에서 천안논산고속도로로 갈아탄다. 공주IC에서 나가면 공주시내 및 금강, 공산성과 가깝고 마곡사로 가려면 마곡사IC로 나가면 된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남부시외버스터미널 경부선에서 20~40분 간격으로 공주로 가는 버스가 있다. 동서울시외버스터미널에서는 1시간 간격으로 버스가 있다. 공산성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걸어갈 수 있고 마곡사는 공주버스터미널에서 770번 버스를 타면 40분 정도 걸린다.

농가식당 밤두부전골·밤묵잡채·밤묵밥·밤국수·밤냉면·밤만두를 비롯해 밤피자와 밤막걸리까지 밤으로 만든 각종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알이 굵은 공주의 밤맛을 제대로 볼 수 있다. 공주시 미나리 3길 6-5(금성동 192-3) ☎ 041-854-8337

공주한옥마을 아궁이 구들장을 체험할 수 있는 공주한옥마을은 친환경 소재인 소나무, 삼나무로 지어져 건강하게 하루를 묵어갈 수 있다. 한옥의 전통적인 건축양식에 현대적인 편리함을 두루 갖춘 퓨전한옥이다. 한지공예·백제유물만들기·백제왕실복식체험·책엮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으며 한옥마을 주변으로 웰빙둘레길도 조성되어 있다. 공주시 관광단지길 12(웅진동 337) ☎ 041-840-8900, hanok.gongju.go.kr

장승마을 관광농원 2,200여 개의 장승과 자연석 조각을 쌓아올려 만든 15미터의 석등이 있는 관광농원으로 펜션뿐 아니라 카라반에서 잘 수도 있다. 여름에는 풀장을 운영하며 국악기·물고기잡기·모닥불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511-1 ☎ 041-841-5220, www.jangseungpark.org

추억의 밀면
아! 옛날이여~

음식의 탄생은 흔히 회자하는 이야기와는 달리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적 측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 부산의 향토음식 밀면이 딱 그런 경우다. 밀면은 냉면과 흡사하지만 면의 원료로 메밀가루가 아닌 밀가루를 쓴다는 점이 다르다. 냉면같이 육수에 담가서도 먹고 비빔으로도 먹는데 밀면이라는 이름도 밀냉면에서 비롯된 것이다.

향토음식이라고는 해도 밀면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아서 6·25전쟁 직후부터 흔히 먹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즈음 이른바 PL480(미국 공법 480호 농업수출진흥 및 원조법)에 의해 잉여농산물 무상원조를 받아 많이 먹게 되었다는 것이다.

시인 김관식이 "한미합동! 우정과 신뢰의 악수표 밀가루"라 노래한 바로 그 밀가루 말이다. 나이 지긋한 이들에게는 추억의 끝자락에 남아 있는 구차했던 시절의 상징이다. 밀면의 대중화는 냉면에 대한 수요와 밀가루의 공급이 맞아떨어져서 생긴 셈이다.

밀면의 발원에 대해서는 설이 엇갈린다. 가장 흔한 설명은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고향에서 먹던 냉면이 먹고 싶을 때 구하기 힘든 메밀 대신 밀가루로 해먹은 것이 그 유래라는 것이다.

당시 부산의 대표적인 피난민촌이었던 우암동에 그 시절 함경도 출신 아주머니가 개업한 밀면집이 지금까지 3대를 이어 성업 중이어서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난민 기원설을 반박하는 견해는 진주 밀국수냉면 유래설이다. 멸치육수에 밀가루면을 말아먹는 진주의 전통음식 밀국수냉면이 밀면의 효시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1925년에 경남도청이 진주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밀국수냉면이 부산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그럴싸한 해설까지 따라붙는다. 진주 역시 냉면으로 유명한 고장이고 보면 이 견해 또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밀가루가 귀해서 밀국수냉면이 과연 서민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예부터 주식이 쌀이던 우리나라에서 밀은 귀한 곡식이었다. 고려 중기에 송나라의 사신으로 왔던 서긍(徐兢)의 저서 〈고려도경(高麗圖經)〉을 보면 "고려에는 밀이 적어 화북에서 들여와 밀가루 값이 매우 비싸서 성례 때가 아니면 먹지 못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 출간된 〈고사십이집(攷事十二集)〉에도 "국수는 본디 밀가루로 만든 것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메밀가루로 만든다"고 했을 정도니 그때까지도 여전히 밀이 귀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밀 생산과 소비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1918년에야 진남포에 일본인들에 의해 첫 제분공장이 설립되었는데 이때 생산된 밀가루는 막걸리를 빚을 때 필요한 누룩을 제조하는 데 많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국내 최장수 국수공장인 '풍국면'이 문을 연 것은 1933년이다. 그러다 1960년대 이후 정부의 분식장려정책에 따라 밀 소비량은 급격하게 늘어났고 동시에 수입량도 크게 늘어났다.

돌이켜 보면 곡식 팔자도 시간문제다. 그렇게 귀했던 밀가루가 구호물자로 전락했다가 지금은 가장 대중적인 식재료가 되었지만, 구황식품이었던 메밀은 요즈음에 와서 웰빙에다 고급 식재료로 각광을 받고 있으니 말이다.

평양식 메밀냉면도 좋지만 누구나 어려웠던 피난 시절을 생각하며 밀면 한 그릇 뚝딱 비우면 어떤 무더위도 쉽게 날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

부산에는 앞서 언급한 밀면의 원조 내호냉면과 동의대 인근의 가야밀면, 개금시장의 개금밀면이 소문이 자자한 집들이고 서울에서는 진관동 북한산 입구의 가야밀냉면에서 그 맛을 볼 수 있다. G

중앙포토

글 · 예종석(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음식문화평론가)

글과 그림 · 최영순

내가 성공을 했다면, 그것은 오직 천사와 같은 부모님의 덕이다.
- 에이브러햄 링컨

김치를 매개로 어머니의 사랑을 풀어낸 연극 〈김치〉의 한 장면.

곰삭은 김치, 가족을 말하다

'가정의 달'을 따뜻하게 할 연극 〈김치〉

역사드라마의 거장 고(故) 김재형 감독이 생애 마지막으로 연출한 작품이 다시 연극무대에 오른다. 전문 예술극단 예인방의 이사장이자 드라마 〈구암 허준〉에서 열연 중인 배우 김진호씨가 2년 여에 걸쳐 완성한 이야기로 남편과 아들을 잃은 한 여인의 삶을 그리고 있다. 2010년 10월 광주 무대에서 초연한 이후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이번 무대의 연출은 영화 〈마파도〉와 〈돈텔파파〉로 잘 알려진 이상훈 감독이 맡았다.

극은 우리 민족의 삶이자 문화인 곰삭은 김치를 매개로 세월의 깊이만큼이나 농익어가는 인생의 의미를 돌아보게 한다. 30년 전 남편과 아들을 사고로 잃고 그 자리를 작은 김치죽집으로 지켜가는 주인공 '향숙'은 시댁·남편·자식, 그리고 세상은 가슴에 안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안지 못하는 여인이다. 가족 앞에서 늘 자신을 희생하는 우리네 엄마를 대표하는 인물로 관객들에게 어머니의 사랑과 고향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극에서 '김치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속죄의 수단이자 도시와 농촌 또는 이웃과 이웃을 이어주는 사랑의 표현이다.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해서 흔한 스토리를 떠올린다면 큰 오산이다. 극은 자칫 뻔하고 처연해질 수 있는 이야기를 '사투리'라는 장치를 통해 교묘하게 빠져나간다. 구수한 사투리와 코믹한 몸놀림을 적절하게 안배해 긴장과 이완을 반복한 것이다. 등장인물들이 펼치는 사투리 열전은 떠나 살지만 마음의 고향인 농촌을 잊지 못하는 도시인들에게 진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장치로 사용된다. 이는 도시생활이 주는 막연하면서도 불안한 경계심을 해체하는 매개이기도 하다.

극은 세대 간의 충돌, 물질만능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던지는 무거운 작업에도 소홀하지 않는다. 90분 동안 관객들은 일상이 주는 묵은 감정의 찌꺼기를 말끔하게 털어버리는 동시에 시대가 직면한 사회 문제를 반추하게 될 것이다.

한편 '가정의 달'을 맞아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에게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5월 8일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에게는 카네이션을, 5인 이상 가족 동반 티켓 구매자에게는 보리굴비 선물세트를 증정한다. 또 인터파크·페이스북·블로그 등에 공연 기대평을 남긴 10명의 관객들에게 매주 추첨을 통해 VIP 초대권을 선사하는 행사도 열린다.

글 · 백승아 기자

기간 5월 8일~12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문의** ☎ 1588-6057

전시

〈책 밖으로 나온 그림〉展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어린이용 그림책 출간으로 유명한 비룡소, 보림출판사를 비롯해 2010년 볼로냐 국제어린이도서전에서 일러스트레이터상을 수상한 일러스트 작품과 다양한 그림책이 전시된다. 그밖에 디자인 및 문화 매거진으로 유명한 디자인하우스에서 출판한 어린이책과 스토리빈의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된 동화까지 다양한 형식의 출판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일러스트 원화 전시는 국내 작가 위주로 선별했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전시 관람뿐 아니라 독서도 가능하다.

기간 5월 19일까지
장소 팔레 드 서울
문의 ☎ 02-730-7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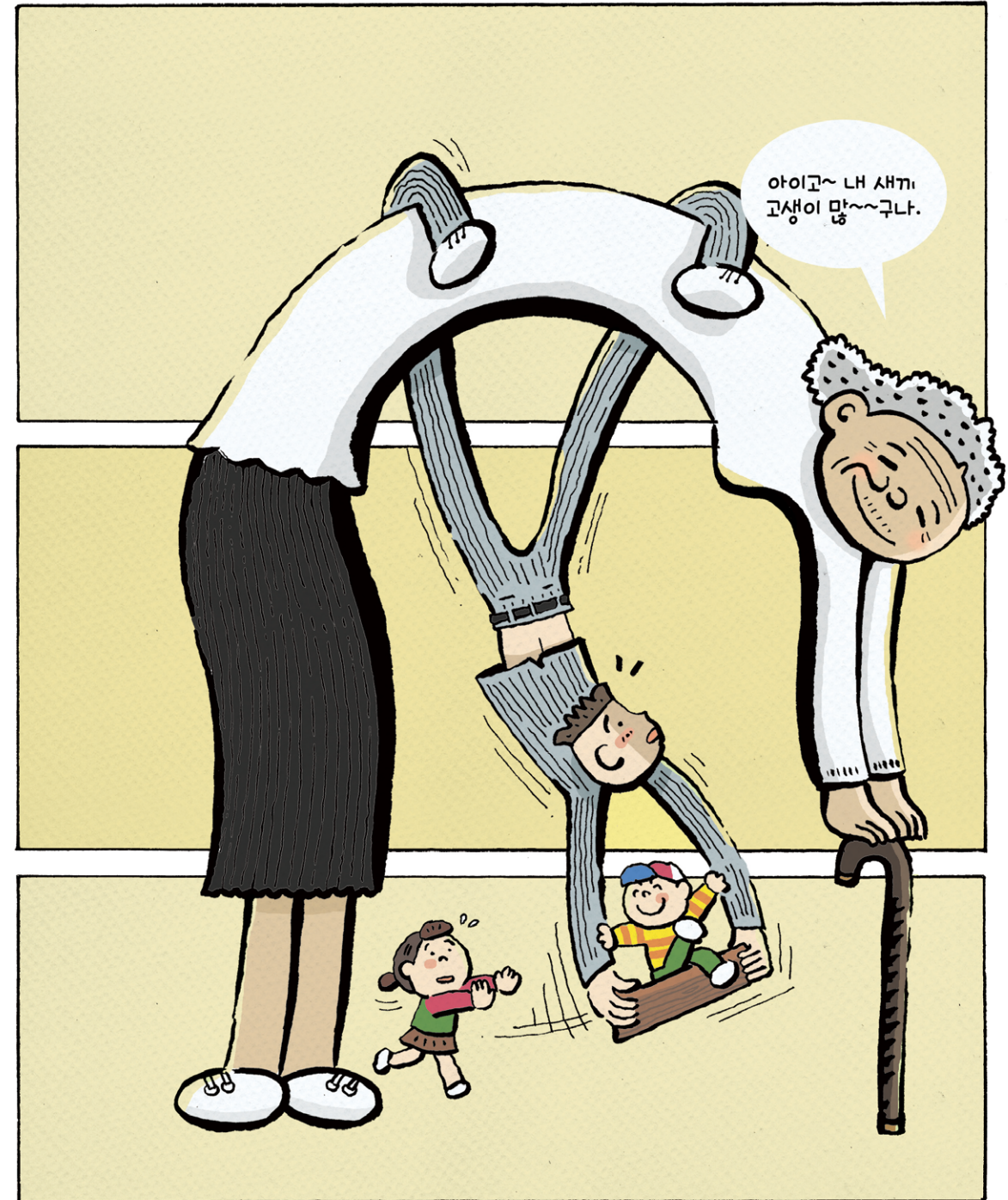
콘서트

〈서울재즈페스티벌 2013〉

국내외 내로라하는 재즈 뮤지션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재즈 업 유어 소울(Jazz UP Your Soul)'이라는 표제 아래 열리는 서울재즈페스티벌을 통해서다. 전설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램지 루이스, 파격적인 연주로 유명한 우에하라 히로미, 싱어송라이터 제프 버넷,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 등 재즈의 거장들이 특별 합동무대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재즈 아티스트 바우터 하멜이 4월 발매한 음반의 첫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기간 5월 17~18일까지
장소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88잔디마당, 수변무대 등
문의 ☎ 02-563-0595

행복한 그네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어머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꽃과 나무에서 삶을 배우다

유난히 길고 추웠던 겨울이 엊그제 같은데 봄마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온 산은 꽃이 피어 거대한 꽃다발을 이룬다. 나무에 난 새순은 어느새 짙은 잎사귀로 샛파랗게 여물었다.

옛 선비들은 곧잘 이런 나무나 꽃에 자신들이 가져야 할 덕목을 덧씌우곤 하였다. 말하자면 식물의 생태에 자신들의 감정을 이입하여 귀하게 여겼던 것이다. 겨울이 채 가시기도 전에 꽃향기를 발산하는 매화와 사절기 변함없이 단아한 모습의 난초와 찬 서리가 내려야 비로소 진한 꽃망울을 터뜨리는 국화와 한겨울에도 변함없이 꼿꼿하게 푸른 대나무에서 그들의 모습이 어른거리지 않는가. 어디 그뿐이랴. 나무 한 그루에 만가지 기개와 지조를 압축하여 표현하니, 이른바 풍설한파 아랑곳하지 않고 바위 절벽에 우뚝 선 낙락장송이다. 고산준령은 없지만 추사의 〈세한도〉에도 그런 의도가 담겨 있지 않던가.

나는 과실나무들의 한해살이를 보며 종종 사람의 성장 과정을 연상하곤 한다. 가장 일찍 꽃이 핀 매화열매가 제일 먼저 익는다. 그 다음 살구가 익고, 버찌가 사방에 떨어질 때쯤 복숭아도 익는다. 늦게 움튼 포도와 감은 여름이 다 가도록 설익거나 푸르고, 가장 늦은 대추는 한가위가 한참 지나도록 약간 붉은색을 띨 뿐이다. 그래도 가장 늦게까지 나무에 달려 있는 것은 감이다.

과수도 이럴진대 하물며 사람이야 어떨까. 같은 과수라도 조생종이 있고 중생종과 만생종이 있듯이, 같은 나이에 학업을 시작하고 동일한 교육 과정을 거쳐 성장하더라도 인격이 완성되어 능력을 십분 발휘하기까지는 사람마다 제각각이다. 이치가 이런데도 우리의 가정 교육은 어떠하며, 학교 교육은 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머리가 늦게 깨어 더디게 성장하거나 조금 늦게 철들 자식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보여주는 불만과 불안은 행여 대기만성할 싹을 미리 자르는 행위가 되지는 않을는지, 조숙한 아이들과 비교되며 학원과 과외로 내몰리는 자식을 그르쳐 저 나름의 결실을 맺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해 보았는지, 경쟁에 내몰리는 아이들이 제 세상을 지탱해줄 굳건한 밑동을 키우기도 전에 시들까 걱정스럽다. 나무가 그렇듯이 모차르트 같은 조숙한 천재도 있고, 베토벤처럼 세월과 더불어 원숙해지는 인물도 있다. 또

일러스트 · 강일구

세상에는 랭보처럼 20대 초반에 이미 시를 다 쓰고 세상 오지를 떠돌다 간 천재시인이 있는가 하면, 환갑이 넘도록 즐겁게 시를 쓰며 무명의 시인으로 살아가는 촌부도 있다.

누구도 그의 천재성을 의심하지 않는 위인을 예로 들어보자. 아인슈타인이 어릴 때 천재였던가? 열다섯 살 때 학우들을 방해만 한다고 학교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대학은 낙방하고 재수 끝에 입학했다. 대학을 졸업하고는 직업을 못 구해 전전하다 친구의 도움으로 겨우 특허국 말단 공무원이 된다. 그때까지 그는 한번도 천재성을 발휘한 적 없는 평범한 젊은이에 불과했다. 그가 천재였다는 사실만 우리에게 중요하지, 그가 그저 보통의 교육 과정을 거친 것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한 그루 살구나무란 이른 봄 꽃에서부터 초여름 무성한 잎과 그 잎 사이로 얼굴 내민 노란 열매와 스산한 가을의 바랜 잎들과 겨울 내내 굴곡진 둥치까지, 한 해를 통틀어 변화하는 모습 전체를 말한다. 그 어느 것도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 없듯이 그 어느 나무도 저마다 아름답지 않은 순간이 없다.

봄 같지 않은 봄이 어느새 잦아들고 있다. 바야흐로 남쪽에는 여름이 다가서고 있다. 꽃다발 산등성이도 짙은 신록을 준비 중이다. 자연의 섭리는 그야말로 제각각 잎 나고 꽃 피고 열매 맺는 시기를 달리하며 반복된다. 그러고 보니 사시사철 결실 없이 잎만 무성한 나무들도 있다.

글 · 전광호(부산대 불어불문학과 교수)